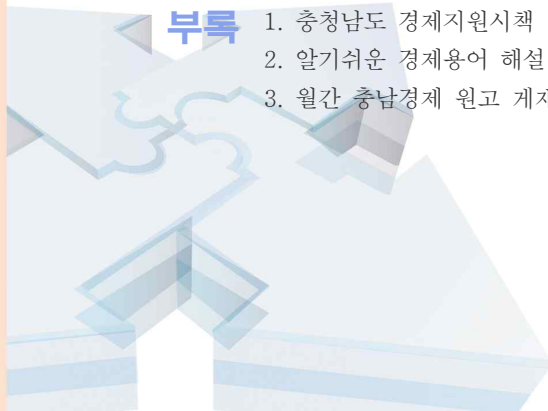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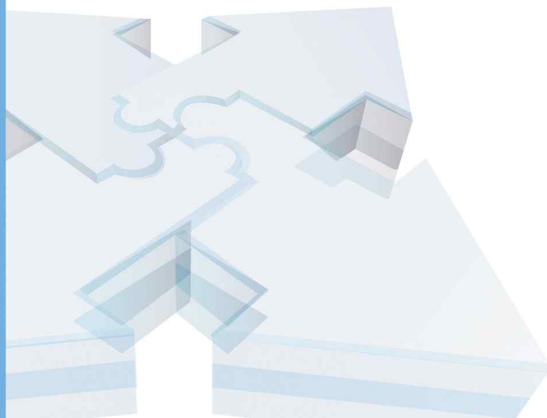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ISSUE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해와 충남지역 서비스 실태분석	3
	유럽 다기능 농업(MFA) 정책 사례와 시사점	13
기업탐방	농촌문화의 한류를 꿈꾸는 벤처농업 '미마지'	29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요약)	39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물가	7. 건설·부동산
	4. 수출입	
	해외경제동향(요약)	58
	1. 미국	3. 일본
	2. 중국	4. 유로지역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65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87
	2. 충남 주요경제지표	89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91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107
	2.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109
	3.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112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해와 충남지역 서비스 실태분석¹⁾

윤 정 미 I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만한 새로운 정책 목표의 기준 제시 요구
- 이에 2011년 농식품부에서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 의미
 - 이는 우리 국민이 도시나 농어촌 어디에 살든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즉, 농어촌에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기준 마련이라 할 수 있음
- 2011년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가 시행되어 8개 부문 31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치가 고시되었으며, 매년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8개 부문 31개 항목(세부기준 43)이었던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2014년부터는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 운용 계획임(213. 9. 9일 농식품부 고시)
- 이에 본 글은 충청남도 2011년과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기 시행된 8개 부문 32개 세부지표에 대한 충청남도 주민의 만족도, 정책 추진 시급성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함

1) 본 글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13년 수행한 “농어촌서비스 충남형 기준(안)”,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실태 및 수요조사” 현안과제, 2012년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 제고 방안 연구” 전략과제에 바탕을 두고 작성한 것임을 밝혀둠

2. 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충청남도 이행점검 결과

1)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²⁾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8개 부문 31개 기준항목, 43개의 세부기준으로 설정
- 세부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통계청 등의 공표통계와 관련 부처의 내부 자료, 지자체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세부기준별 2011년과 2012년 달성률을 점검하였음
- 2011년 설정된 농어촌서비스 기준 각 항목별 목표값은 다음과 같음

[표 3]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변수 및 목표값

부문	항목	평가 변수	목표
주거	주택	최소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90%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행정리 비율(%)	100%
		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00%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71%
교통	대중교통	대중교통 기준 충족 행정리 비율(%)	100%
	인도(人道)	인도 설치 도로 비율(%)	100%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규모 학교 중 적정규모 학교 육성 비율(%) ※소규모 학교가 없을 경우 100%로 간주	100%
	방과 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설치 읍·면 비율(%)	100%
보건 의료	순회방문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마을 비율(%)	100%
	의약품 구입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읍·면 비율(%)	100%
복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 비율(%)	100%
	아동	방과후 돌봄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영유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읍·면 비율(%)	100%

2)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일부 수정이 진행되어 현재 수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사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은 2014년 보고서에 수록되어질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설명은 제외함

부문	항목	평가 변수	목표
응급	응급 서비스	30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소방 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가능 행정리 비율(%)	100%
	도난 방지	CCTV설치 행정리 비율(%)	100%
문화	독서	도서 대출·열람 가능 읍·면 비율(%)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월 공연 횟수	1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수혜 행정리 비율(%)	100%
정보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가입자 수/총 가구 수	100%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총 가구 수	80%

자료 : 김광선 외,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5

주 : 지수 구성에서 제외한 서비스기준 항목

- 일부 시·군에만 해당하는 서비스기준: 여객선(교통), 폐교(교육),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응급)
- 통계자료 미비: 경찰서비스(응급)
- 통계자료의 지수 산정 적합성 부족: 고등학교(교육), 의견 수렴(교육), 진료서비스(보건 의료), 청소년(복지), 다문화가족(복지)

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분석

- 2011년과 2012년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점검 결과 전체 40개 항목 중 13개 항목 달성
- 주거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하수도보급률의 경우 전체 농어촌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충남은 미달성. 또한 상수도 보급률도 충남도의 경우 전체 농어촌의 달성률보다 낮은 실정임
- 교통부문의 버스3회 이상 운행마을 비율 지표는 2011년과 2012년 이행점검 결과가 동일하여 이행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도출됨
- 교육부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지표의 경우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보건의료부문은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항목과 “읍면별 의약품 구입가능”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응급부문의 경우 CCTV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2011년과 2012년 이행실태 점검 비교 결과 8개 항목이 2011년 이행보다 더 낮게 도출되었음

[표 5] 전체 농어촌과 충청남도의 2011년과 2012년 이행실태

구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세부기준)	달성 목표	충남 달성 여부	전체 농어촌		충남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증감
주거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0% 이상	90		76	84.8	83.9	89.1	5.2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50%이상	50		36.2	44.7	33.9	45.8	11.9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달성	0.8	1.5	0.6	1.5	0.9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100		81.2	89.2	95	95.4	0.4
	공동시설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00		26.5	28.4	36.1	34.1	-2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75		55.7	56.1	40	43.2	3.2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71		82.6	74.1	56.6	64.6	8
교통	도보15분내 정류장 버스3회이상은행마을 비율	100		86.6	90.4	92.5	92.5	0
	준공공프로그램 운영 여부	100	달성		35.5		31.3	31.3
	도서지역 1일 1회 여객선 운항	100		97.4	97.4	-	-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100		19	14	34	25.8	-8.2
교육	적정규모 학교 육성	100		6.7	8.9	5.7	6.6	0.9
	적절한 통학수단제공	100			97.8		91.7	91.7
	우수고교 1개 이상 육성	100		85.7	86.3	81.3	81.3	0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100	달성	97.8	95.7	100	100	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70	달성	72.4	82.8	83.7	85.6	1.9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100		60.7	66.7	62.5	73.3	10.8
보건 의료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100		18.9	19.8	19.9	21.6	1.7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100	달성	98.8	78.3	100	100	0
	마을별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100		0.2	6.7	0.4	7.1	6.7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100	달성	99.6	99.6	99.4	99.4	0
복지	취약계층노인주거의상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100		27.3	27.1	29.1	24.5	-4.6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 1개 이상	100		92.5	91.4	87.5	87.5	0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100	달성	97.9	98	99.4	100	0.6
	읍·면별(소규모)보육시설운영	100		69.9	67.9	77.8	74.8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0		90.7	94.2	93.8	93.8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제공	100	달성	100	99.3	100	100	0
응급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100	달성	99.8	99.5	99.9	99.9	0
	5분 내 화재현장 도착 비율 55% 이상	55	달성	51.4	52.3	73.9	67.6	-6.3
	행정리 방범용 CCTV 설치	100		11	20.2	9.7	24.1	14.4
	항포구 방범용 CCTV 설치	100		5.2	7.2	11.7	20.2	8.5
문화	10분 이내 사건 현장 도착	100	달성	100	100	100	100	0
	읍·면도서관/대출가능	100		42.8	43.2	41.5	42.7	1.2
	접근성이 낮은지역대안서비스(유무)	100			47.1		60	60
	문화원·문화회관운영	100		99.4	98.6	100	93.8	-6.2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100		46.1	55.4	62.5	56.3	-6.2
	분기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100		70	75.5	100	93.8	-6.2
정보 통신	읍·면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100		14	30.2	9.9	19	9.1
	초고속망 구축률 100%	100		67.9	99.7	70.2	72.1	1.9
	광대역통합망구축률80%이상	80		61.6	87	63.4	65	1.6

자료 : 김광선 외, 2011,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촌경제연구원, 윤정미 외, 2012,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 제고 방안 연구 제정리

3. 의식조사를 통한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 실태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농어촌 서비스 실태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화설문, 이메일 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음
- 조사항목은 크게 농어촌 서비스기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항목별 만족도, 정책 현황 및 서비스 기반 확충의 중요도, 기타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었음
- 조사대상자는 각 시군별로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홍성군은 2012년 전략과제로 수행되어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설문내용 중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만족도와 정책추진시급성에 대한 부분만을 분석하였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별 만족도 및 정책추진시급성 결과

- 충청남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만족도 분석결과 주거부문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통신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는 문화부문과 응급부문인 것으로 도출되었음
- 만족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투입 시급성에 대한 응답은 앞의 만족도의 결과와 동일하게 문화부문과 응급부문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음

〔표 6〕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만족도와 시급성의 각 부문별 평균

부문	만족도			정책추진 시급성		
	충남평균	시평균	군평균	충남평균	시평균	군평균
주거부문	3.30	3.32	3.29	2.84	2.95	2.74
교통부문	2.84	2.91	2.79	3.30	3.33	3.27
교육부문	2.85	2.97	2.72	3.31	3.30	3.33
보건의료부문	2.85	2.89	2.81	3.35	3.35	3.34
복지부문	3.05	3.07	3.04	3.18	3.24	3.12
응급부문	2.83	2.89	2.72	3.41	3.38	3.44
문화부문	2.80	2.90	2.72	3.45	3.40	3.51
정보통신	3.19	3.25	3.12	3.01	2.97	3.04

3) 만족도가 낮고 정책 시급성이 높은 부문 도출 결과

-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어촌서비스 기반 8개 부문 중에서 만족도-정책시급성을 바탕으로 교차분석을 종합한 결과, 낮고 정책시급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부문은 교통부문이 10개 지역(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음
-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부문과 응급서비스, 문화여가부문이 각각 9개 지역, 교육부문이 8개 지역, 사회복지부문이 3개 지역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주거와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부문은 만족도와 정책시급성에서 비교적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음
- 따라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 기반은 교통, 보건의료/응급서비스/문화여가, 교육, 사회복지 등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군 차원에서 살펴보면, 8개 시지역 중에서 교통부문이 6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보건의료부문, 응급서비스/문화여가 부문, 사회복지부문 순으로 나타났음
- 7개 군지역 중에서는 응급서비스/문화여가 부문이 각 5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보건의료 부문이 각 4개 지역, 교육부문이 3개 지역 순으로 나타났음

[표 7] 8개 부문의 만족도와 정책시급성 정도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서비스		문화여가		정보망확충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만족도 낮음	정책시급성 높음
천안			○	○	○	○	○	○			○	○	○	○		
공주		○			○			○	○	○		○	○			
보령			○	○	○	○	○	○	○	○	○		○			
아산			○	○			○	○		○		○	○			
서산					○	○	○	○		○		○	○	○	○	
논산			○	○	○	○	○	○			○	○		○		
계룡			○	○	○	○	○	○			○	○	○	○		
당진			○	○	○	○	○	○			○			○		
금산						○	○	○	○	○		○	○	○		○
부여					○	○	○				○	○	○	○		
서천			○	○	○		○	○			○	○		○		
청양			○	○	○	○	○				○	○	○	○		
예산					○	○					○	○	○	○		
홍성			○	○		○	○	○				○	○	○		
태안			○	○			○	○			○	○		○		
시지역	0	1	6	6	6	6	7	6	2	4	6	6	5	7	1	0
군지역	0	0	4	4	4	5	6	4	1	1	5	7	5	7	0	1
전체	0	1	10	10	10	11	13	10	3	5	11	13	10	14	1	1

〔표 8〕 시군별 만족도가 낮고 정책 시급성이 높은 부문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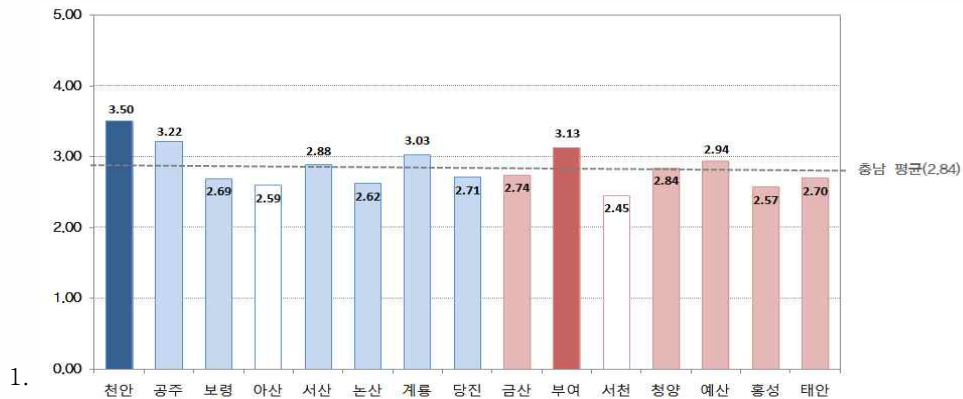
구분	주거	교통	교육	보건 의료	사회 복지	응급 서비스	문화 여가	정보망 확충
천안		○	○	○		○	○	
공주					○		○	
보령		○	○	○	○	○		
아산		○		○				
서산				○			○	
논산		○	○			○		
계룡		○	○	○		○	○	
당진		○	○	○				
금산				○	○		○	
부여			○			○	○	
서천		○		○		○		
청양		○	○			○	○	
예산			○			○	○	
홍성		○		○			○	
태안		○		○		○		
시지역	0	6	5	5	2	4	4	0
군지역	0	4	3	4	1	5	5	0
전체	0	10	8	9	3	9	9	0

○ 만족도가 낮고 정책시급성이 높은 부문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9〕 시군별 만족도와 정책시급성 정도

시군	만족도가 낮고 정책시급성 높은 부문
천안	교통, 교육, 보건의료, 응급, 문화여가
공주	사회복지, 문화여가
보령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아산	교통, 보건의료
서산	보건의료, 문화여가
논산	교통, 교육, 응급
계룡	교통, 교육, 응급, 문화여가
당진	교통, 교육, 보건의료
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부여	교육, 응급, 문화여가
서천	교통, 보건의료, 응급
청양	교통, 교육, 응급, 문화여가
예산	교육, 응급, 문화여가
홍성	교통, 보건의료, 문화여가
태안	교통, 보건의료, 응급서비스

- 위에서 언급한 충청남도, 시지역, 군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기반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에 고려할 부문은 교통 부문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교통 부문의 충남전체 평균(2.84점)을 상회하는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으로 나타났음
- (시지역)그 중, 시지역은 천안시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산시가 2.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군지역은 부여군이 3.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서천군은 2.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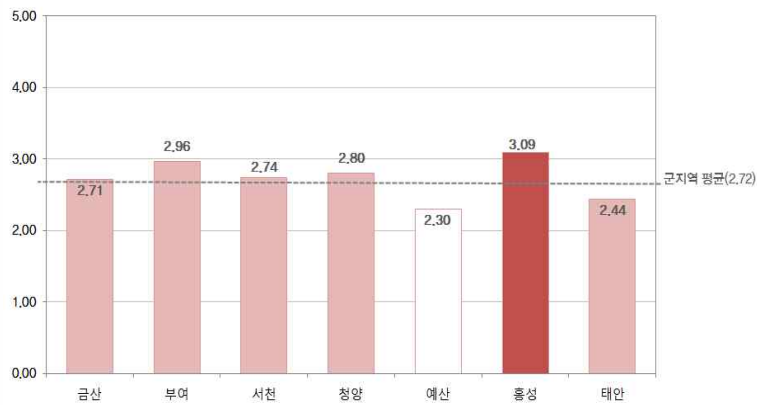
(그림 1) 교통 부문 만족도

- (시지역)시지역에서는 교통 부문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바, 시지역 평균(2.91 점)을 상회하는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로 나타났고, 그 중 천안시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산시가 2.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그림 2) 시지역 교통 부문 만족도

- (군지역)군지역에서는 응급서비스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음. 응급서비스 부문의 군지역 평균(2.72점)을 상회하는 지역은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으로 나타났고, 이 중 홍성군이 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예산군(2.30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3〕 군지역 응급서비스 부문의 만족도

- (군지역)문화여가 부문의 군지역 평균(2.72점)을 상회하는 지역은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서천군이 2.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금산군(2.36점)으로 나타났음



〔그림 4〕 군지역 문화여가부문 만족도

4. 결론

-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11년 2012년 이행실태를 검토하였음
- 또한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충청남도 주민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만족도 및 정책추진시급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시군별로 우선적으로 정책을 투입할 농어촌서비스기준 선정 필요
 - 시군에서 목표를 달성한 항목도 있기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핵심항목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모두 달성하는 데에는 행정력이나 예산 차원에서 무리가 있음
 - 이에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핵심 기준 항목을 선정하여 이행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주민 수요에 대응한 각 시군별 서비스기준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수요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만족도가 낮고 정책시급성이 높게 도출된 부문이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부문이기에 시군차원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만족도가 낮고 정책시급성이 높게 도출된 부문인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응급부문의 경우 모두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이기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군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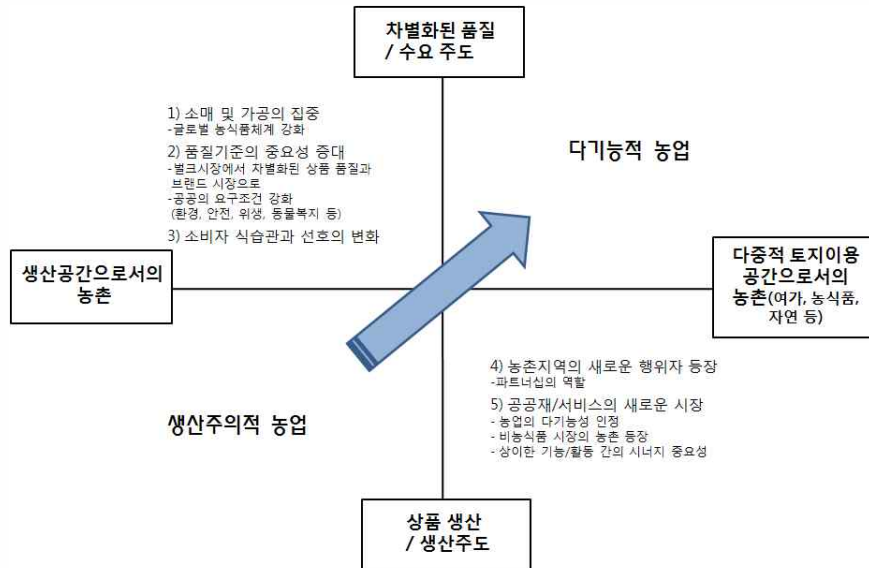
- 윤정미 외(2012),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 및 이행 제고 방안 연구
 윤정미 외(2013),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실태 및 수요조사
 윤정미(2013),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촌서비스 충남형기준 (안)
 김광선 외(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광선 외(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유럽 다기능 농업(MFA) 정책 사례와 시사점

정현희 I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전임연구원

1. 들어가며

- 플라톤은 국가라는 저서에서 농업은 인간의 배와 같은 산업으로 농업이 없이 인류는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함.
- 이와 같이 농업은 과거 식량생산이라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되어 굶주림을 탈피하기 위한 식량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같은 농산물 생산 기술 중심의 정책이 다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식량증산 중심정책에서 FTA/DDA 타결 및 소비자 식습관 변화에 따라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소비자 식습관 및 선호도 변화에 따른 로컬푸드(local food), 친환경 농업 정책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
- 반면 최근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의 농가경쟁력 향상 정책에 더 앞서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비시장재화인 다기능성을 활용하는 다기능 농업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자료 : Renting(2008), 허남혁(2012)

- 다기능 농업은 농업이 주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치유, 돌봄,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창출까지 가능한 포괄적 포스트 생산주의적 개념이라 할 수 있음(Renting, 2008, Clark 2010).
- 본고에서는 유럽의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기능 농업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촌개발정책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써 적용가능성과 다기능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있어 논의하기로 함.

2.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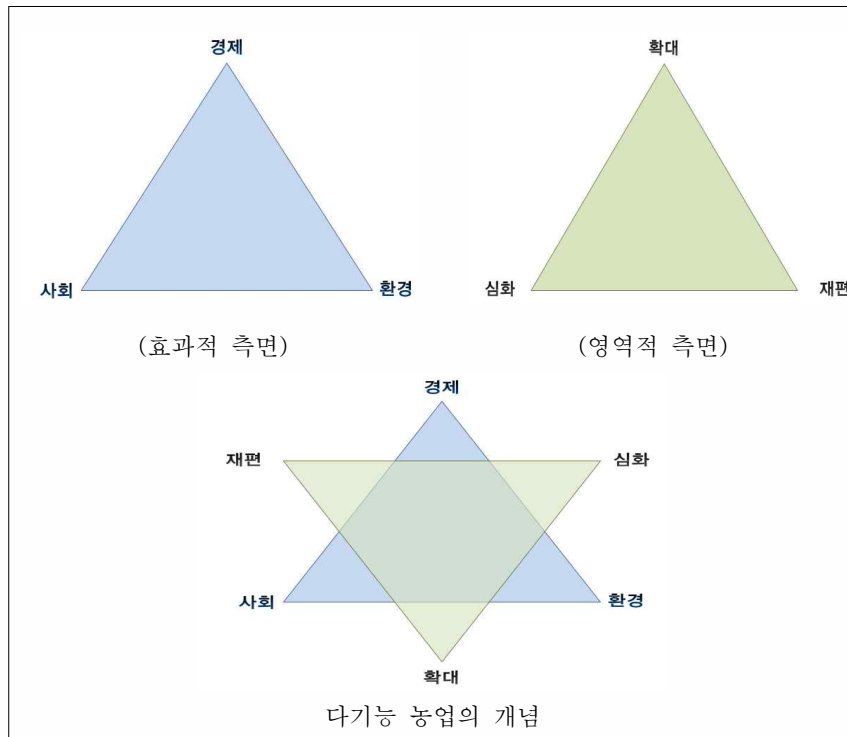
1) 다기능 농업의 개념

-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는 농업이 생산 집약적이고(intensive production) 경제성이 뛰어난 농산물 재배 체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농업의

비시장재화(non-trade concern)에 대한 관심 보다는 생산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 이러한 시장 중심적 경제는 농촌환경과 자연환경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자국 농산물 시장 또한 경쟁력이 있는 단일 농산물 생산 형태로 변해 식량안보에 취약한 형태로 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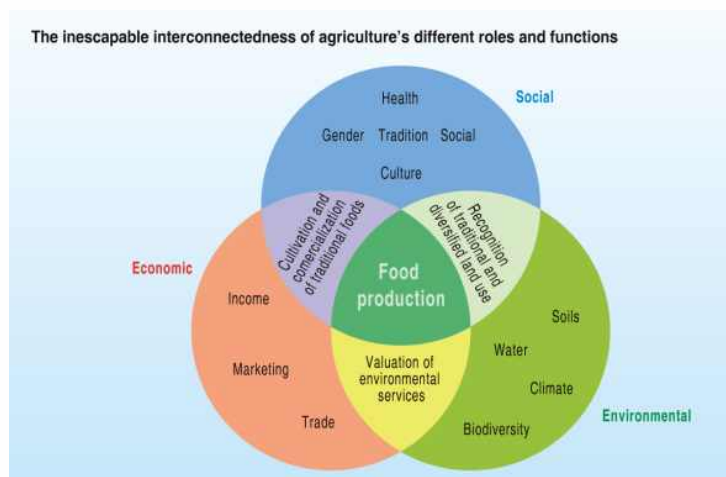
- 유럽에서는 기존의 생산주의적 농업(productivist agriculture)의 패러다임에서 점차 포스트 생산주의적(post-productivist)적 농업의 형태로 다기능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함.
 - 1993년도부터 시행된 EU 공통농업정책(CAP : Commom Agriculture Policy) 및 LEADER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친환경 농업과 다각화 농업(mixed agriculture)을 기반으로 농업의 다기능성을 활용해 돌봄, 치유, 교육, 관광, 레크리에이션을 농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다기능 농업 형태로 변화가는 추세임.
- 다기능 농업의 개념은 유럽 및 네덜란드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이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2011, VNG)³⁾. 또한 농업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활용하여 농업과 다른 서비스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것을 다기능 농업으로 정의하기도 함(2012, Hans Hurni).
- 농업의 기초적인 기능인 식량 생산을 넘어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정화, 어메니티 복원, 문화유산 활용, 식량안보 등 과거 농업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을 의미함(Belletti G. 2002).
 - ⇒ 농업의 외부효과인 다기능성을 농업의 소득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농업 생산 활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라 할지라도 농업과 이질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과 같은 농업 형태라 할 수 있음.

3) Multifunctionele landbouw is als begrip geïntroduceerd om aan te geven dat landbouw en landbouwbedrijven meer doen dan landbouwproductie(2011, VNG)



〈그림〉 다기능 농업의 영역 및 효과

2) 다기능 농업의 효과 및 영역



자료 : 농업의 다기능성이 갖는 3대 기능 (IAASTD 보고서, 2008)

〈그림〉 다기능 농업의 3가지 효과

○ 경제적 효과(economic) : 식품산물/비식품산물의 상품성/부가가치 증진

- 첫째, **식품산물**의 부가가치 증진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과
 - ※ 유기농화, 슬로푸드/전통음식, 지역인증(지리적 표시 등) 등 기존 식품과의 차별화 활동, 가공과 조리활동, 직판을 통한 농민의 수취비율 증진활동
- 둘째, **비식품산물(서비스)**의 신규시장 창출 및/또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 ※ 농촌 어메니티의 증진을 통한 농업·농촌관광, 교육/체험, 휴양/치유 서비스시장의 창출 및 활성화
- 셋째, 농촌지역경제의 경제적 활성화 효과
 - ※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연계부문들에서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포획도가 증진되는 효과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특히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효과)

○ 사회적 효과(social) : 비농업인의 농사활동 체험 통한 휴양, 치유, 교육 효과 +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사회문화 유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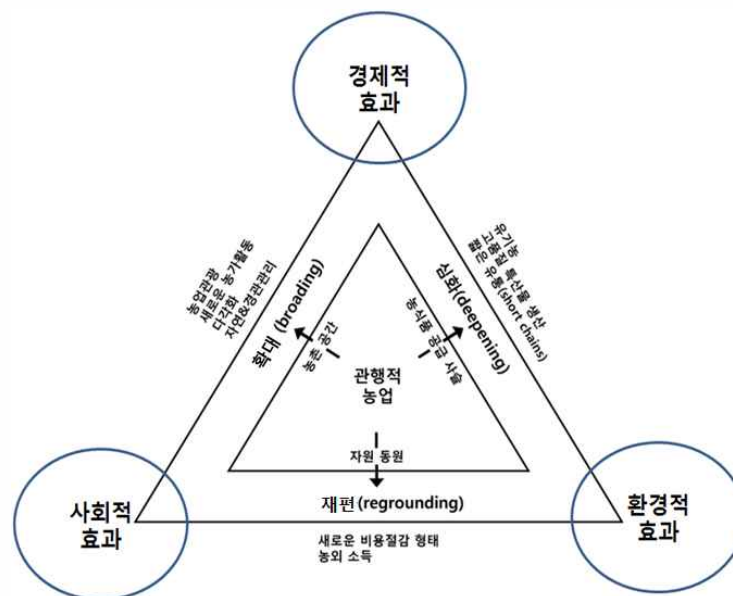
- 휴양: 일반적인 도시민의 휴양제공(건강)
- 치유: 특정그룹의 정신질환, 중독증 치유(건강)
- 교육: 영유아,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를 교육
- 농촌지역사회문화 유지: 새로운 일자리나 일거리의 창출을 통하여 농촌공동체성, 농촌지역경제, 농촌전통문화(농업문화/식문화 포함) 유지

○ 환경적 효과(environmental) : 친환경적 농업의 수행을 통한 환경보전 및 환경유지의 기능

- (종합) 농촌의 어메니티 유지
-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유지
- (물/토양) 수자원/토양자원 유지
- (기후)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저감 기능: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흡수
- (경관) 농촌다운 (자연/문화) 경관의 유지

3) 다기능 농업 추진 전략

- Ploeg와 Roep(2003)가 기존의 관행농업이 다기능 농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다기능 농업의 전략적 영역을 심화(deepening), 확대(broadening), 재편(regrounding)의 3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삼각형으로 도식화함.
 - 재편 전략은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내부자원을 재 조직화하는 활동들(다각화농업, 친환경농업, 자원순환농업, 경관개선활동)
 - 심화 전략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공급사슬)의 고부가가치 지향을 강화하는 전략(전통적 생산방법, 유기농업, 지역 특산물과 지역 인증, 직판, 농가 가공)
 - 확대 전략은 농업관광, 자연 및 경관관리,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등 농가에서 농업 생산 활동 이외의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함.
- 다른 방식으로 앞서 언급한 다기능 농업의 3가지 전략 영역과 다기능 농업의 3대 효과를 중첩시켜 표현하면 다기능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확대, 심화, 재편의 3대 전략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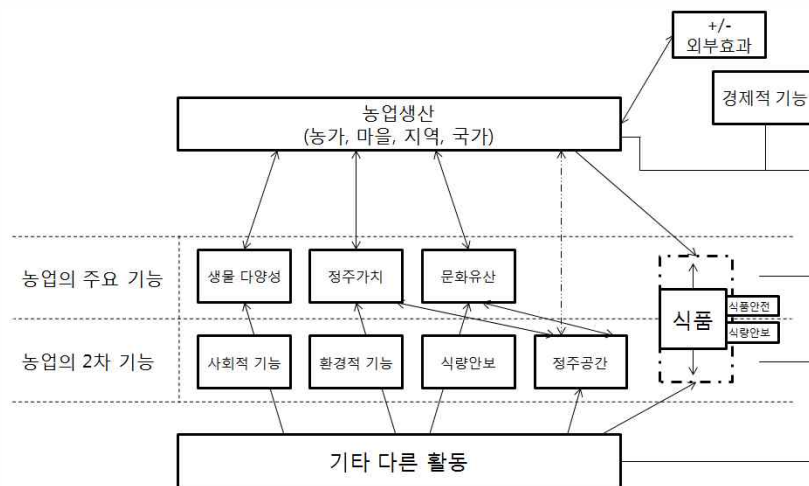


〈그림〉 다기능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3가지 요소와 3가지 효과

3.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현황 및 사례

1)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현황

-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두 배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부 산하 민간 및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다기능 농업 테스크 포스(Multifunctional Farm Task Force)를 네덜란드 와게닝겐(WUR)에 설립
- 테스크 포스는 시장수요의 증진(add-value) 지역소통 공간의 제공(communication), 기업가 정신의 강화(education),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개발(network), 현장접근 연구 개발(R&D)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함.
-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기능 농업은 6개의 정책적 범주로 치유(care), 돌봄(child care), 직판(direct sell), 농촌관광(echo-tourism), 레크레이션(recreation), 교육농장(education) 형태로 추진됨.



〈그림〉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의 형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또한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부터 힐링(healing)하고자하는 욕구와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체험학습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활동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장과 도시에서서만 존재하였던 돌봄 혹은 어린이집 시설이 각각 2007년도에 756개 농장에서 1,050개 농장으로 두 배 가깝게 증가함
- 돼지와 소를 키우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농장 또한 20개에서 209개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각각 치유농장은 4천 5백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 돌봄 농장은 4백만 유로였던 것이 4년만인 2011년에 2천만 유로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가소득 효과로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돌봄이나, 치유 힐링, 농촌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구성원 등의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직판장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임.

〈표〉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형태 및 경제성과 지표

구분	농가수(company)			매출액(year), 백만유로		
	2007	2009	2011	2007	2009	2011
치유농장	756	870	1,050	45	63	80
돌봄농장	20	64	209	4	14	20
직판장	2,580	3,000	3,300	89	128	147
농촌관광	13,700	13,660	14,000	90	79	86
레크레이션	2,432	2,240	2,884	92	121	156
교육농장	500	500	800	1.5	1.7	2.2
계				322	407	491

2)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사례

○ 에이크 후퍼 _ 치유 농장, 사회적 기업 농장

- 이 곳 치유농장은 축구장 크기의 16배나 되는 12ha 토지에 유기 농업 방식으로 채소와 6천 마리에 이르는 닭을 키우고 있음.
- 치유 농장을 찾는 고객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 치매환자, 노인 등이며 총 인원은 85명이 상주
- 간호사와 20명의 돌봄 코디네이터가 환자별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농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상주하는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가 닭을 키우거나, 채소를 수확하는 등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생산된 농산물과 달걀은 유기인증을 받고 전 세계로 판매 하거나 치유 프로그램 환자 가족 등 일주일에 약 7천에서 8천명의 유동인구가 찾아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직판장에서 판매됨. 이곳 에이크 후퍼 농장의 연간 총 매출액 120만 유로이며 이중 절반이 직판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임.

○ 그룹 읍 여 레이폰 _ 어린이 치유 농장

- 그룹 읍 여 레이폰은 여의도 면적의 1/4 크기인 네덜란드 생태보호구역 안에 네덜란드 치료기관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치유 농장임. 이곳 치유농장에서는 약 2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주하고 있음.
- 주로 주위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그리고 정신적 상처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이곳 치유 농장의 주요 고객이며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동물들과 교감하며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어 상처를 치유 하고 있음.

○ Farm Zonnehoeve _ 돌봄농장, 체험농장, 교육농장, 직판장 운영

- Farm Zonnehoeve는 네덜란드 동북부 알메르(Almere) 간척지역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바이오다이나믹(bio-dynamic)농장임
- 이곳 농장에서는 14명의 종사원과 돌봄 의료가정이 종사하고 있음. 농지면적은 50ha규모로 60마리의 홀슈타인 육우와, 밀, 밀짚, 사료용 토끼풀, 사탕무 등을 다각화(mixed farming) 유기농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친환경 농업이며 목초지의 초목은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배설된 분뇨는 다시 퇴비로 환원되는 자원 순환형 농업을 기반으로 함.
- 농업생산 이외에 사회적 기능으로 돌봄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가정과, 전문 돌봄 직원이 상주하여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음.

- 농장에서는 종마를 사육하고 있으며 승마체험도 진행
- 농장 한편에서는 이곳에서 유기 생산된 밀로 빵을 직접 만들고 있으며, 악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며 정신적 신체적 치유활동도 함께 하고 있음.
- 교육농장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 워크숍도 유치하는 등 전통적 농업형태를 재심화(deepening), 포괄화(broadening)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림〉 Farm Zonnehoeve 다기능 농업 현황

4. 정책적 제언

○ 농어촌 경관개선을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 생산 정책 마련

- 농업의 친환경농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토의 80%가 농지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수준은 전체경지 면적 대비 11.6%이고 충남은 6.4%로 전국대비 친환경 면적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충남의 경우 축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축산업의 조방화, 가축분뇨의 순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다기능 농업 차원뿐만 아니라 농업전반에 걸쳐 친환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1차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2차 가공(심화) 3차 서비스(확대)로의 연계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기 어렵고, 농촌의 어메니티를 체험하거나, 돌봄, 치유와 같은 농촌 경관을 활용한 서비스 활동 및 다기능 농업화를 모색 하는 데도 역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농어촌 경관(landscape) 및 자원(amenity) 보호 정책 마련

- 다기능 농업은 농촌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경관 자원 및 어메니티와 같은 외부효과를 활용하는 농업으로 농업의 친환경성이 보장되어야만 다기능 농업으로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촌에는 과거에서부터 지켜져 온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공동체 문화가 전승되고 있음. 또한 돌담길, 사당, 우물과 같은 농촌자원과 숲, 생물다양성, 습지와 같은 자연자원이 있음으로 이러한 농촌자원과 자연자원을 보존하여 농업의 다기능성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농촌개발정책의 종합적 분석 및 다양하고 세분화된 농촌개발 정책 마련

- 농촌개발 정책의 한계 : 기존 농촌개발 정책은 각 부처별로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중복되거나,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최근 시행되고 있는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정되면 일정 금액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건축비와 인건비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비가 특정 농가 중심으로 집중되어 농촌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을 연계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할 것임. 특히 사업실적 위주의 농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써 농촌의 재편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등 마을경관을 위한 지원 제도 확충

- 유럽과 네덜란드의 다기능 농업을 예로 들면 유럽의 공통농업 정책(CAP:Common Agriculture Policy)을 기초로 하여 LEADER와 같은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유럽 전역

4) 충남발전연구원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연구에서 여러 농촌개발사업들간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에서 추진되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유럽의 직불금 제도를 다기능 농업화 하는데 활용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네덜란드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세분화된 직불금 유형을 만들어 다기능 농업으로 제도화하였음.

〈표〉 유럽연합 공통농업정책(CAP)에서 직불제의 내용

종류	분류	예산
단일지불(SPS)	제1기등 직접지불(direct Payment)	예산 100% EU EAGF 부담
농업환경정책	제2기등 농촌개발 (제2축: 213, 214, 215, 224, 225) - 농업환경지불 - Natura2000지불 - 동물복지지불 - 산림환경지불	회원국별 프로그램 - 예산분담: EU EAFRD 50%, 회원국 50% (지방정부 포함)
조건불리지역 지불	제2기등 농촌개발 (제2축: 211, 212)	- 예산분담: EU EAFRD 50%, 회원국 50% (지방정부 포함)

자료 :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충남리포트 81호, 허남혁 외(2013).

- 직불금 제도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스위스이며 1996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를 위한 연방정부의 책무를 연방 제104조⁵⁾ 헌법에 규정함.
 - 스위스는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을 보상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 2010년 기준 농림부 전체 예산 중 75%가 직불예산임.

〈표〉 스위스 직불예산 규모 추이

단위 : 100만 프랑,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림부 예산	4,028	3,572	3,754	3,872	3,720	3,750	3,608	3,644	3,601	3,550	3,692	3,666
직불 예산	2,285	2,114	2,333	2,428	2,435	2,498	2,464	2,553	2,596	2,545	2,742	2,769
비중	56.7	59.2	62.1	62.7	65.5	66.6	68.3	70.0	72.1	71.1	74.3	75.5

자료 : 스위스 농업부 <http://www.blw.admin.ch> 충남리포트 81호, 허남혁 외(2013)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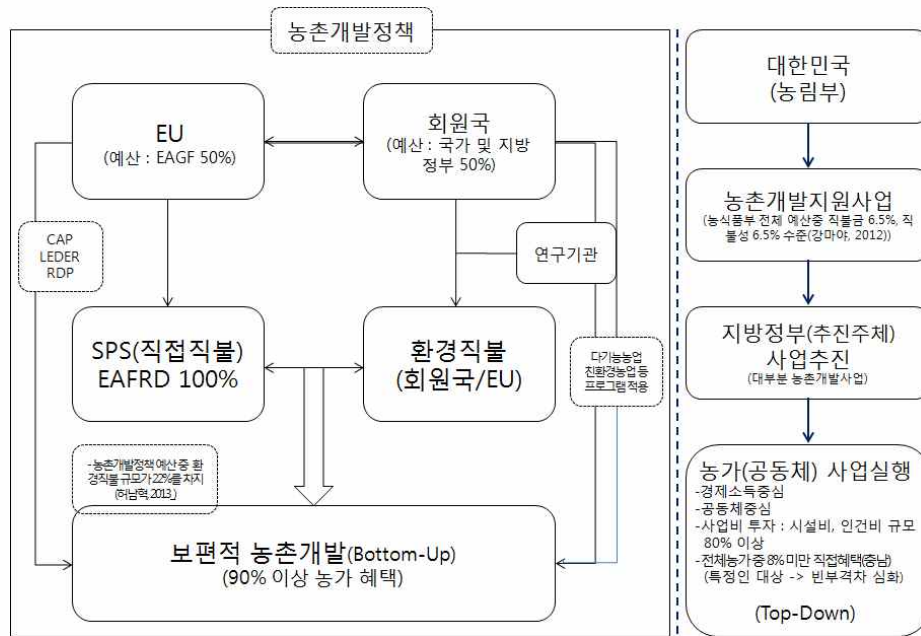
- 우리나라농업 부가가치 중 직불금 비중은 2012년 기준 9.5%⁶⁾로 미국 13.6%, 유럽

5) 농업은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과 결합하여 다기능성을 발휘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하였함
농업은 국민을 위한 식량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농촌경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지역에 주민이 분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필요성을 법에 규정

6) 실질가격(2010=100)

30.2% 스위스 72.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강마야, 2013)

⇒ 농촌개발 및 다기능 농업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직불금 정책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 형태로서 농촌의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직불금 제도가 적극 모색되어야 하고 이로써 다양하고 세분화된 농촌개발 정책을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그림〉 우리나라와 유럽의 농촌개발 정책 형태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극 활용

- 정부에서는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2014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음.
- 본 특별법에서는 농어촌 경관을 개선 및 농어촌 복지증진 등 7대 목표(보건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기초생활인프라확충, 경제활동다각화, 문화여가여건향상, 환경경관개선, 지역발전역량강화)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 본 특별법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함(2005년 10월)
- 특별법 시행에 있어 다양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농촌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특별법상에서 제시된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와 마을 공동체가 주관하는 형태의 경관개선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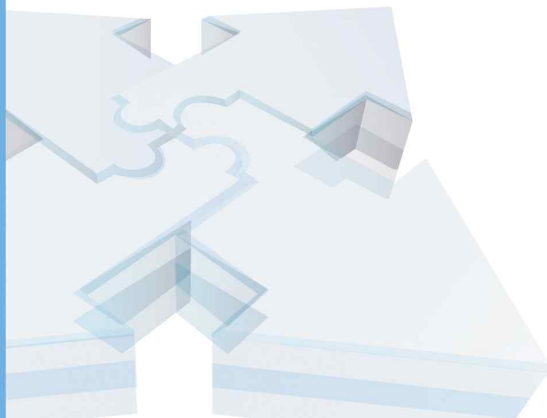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참고문헌

- Julian Clark, 2010, "Geographies of Multifunctional Agriculture : Developing Governance Explanations, Geography Compass, Volume 4, Issue 7, pages 803 - 818.
- Renting, H., 2008, "Collective Farmers' Marketing Initiatives across Europe: Driving Forces, Diversity & Challenges, Encouraging Collective Farmers Marketing Initiatives", Final Conference, 8 May 2008, Brussels.
- Multifunctionele landbouw is als begrip geïntroduceerd om aan te geven dat landbouw en landbouwbedrijven meer doen dan landbouwproductie(2011, VNG)
- Belletti, G. et al. 2002, "The socio-economic impact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realities and potentials" project, EU Fari CT4288.
- IAASTD, 2008, Agriculture at a Crossroads: Synthesis Report.
<http://www.unep.org/dewa/Assessments/Ecosystems/IAASTD/tabid/105853/Default.aspx/>
- Ploeg, J. and Roep, D. 2003, "Multifunctionality and rural development: the actual situation in Europe", in Huylenbroeck, G. and Durand, G. (eds.), Multifunctional Agriculture: A New Paradigm for Europea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ldershot: Ashgate.
- 허남혁 외, 2013,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충남리포트.
- 강마야 외, 2013,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충남리포트.
<http://www.blw.admin.ch/>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농촌문화의 한류를 꿈꾸는 벤처농업 ‘미마지’

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아한 한옥풍의 집이 들어서 있다. 그 앞에 각종 풀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고, 울타리를 대신하는 진입로에 오두막이 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미마지’의 풍경이다.

‘미마지’가 있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는 전통문화 유산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 이젠 민속 문화와 함께 구수한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마지(味摩之)’는 백제의 음악가 겸 무용가로 중국 오나라에서 기악무를 배워 돌아온 후 백제 무왕 시절 가까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백제 문화를 전파한 예술가의 이름이다. ‘맛(味)’을 갈고 닦는다(摩)’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이 농가맛집의 이름이 된 사연에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었다.



◇ 지역특색 벤처농업 ‘미마지’

예비사회적기업인 ‘미마지’의 사업분야는 △로컬푸드(Local food) △자연염색 △문화체험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로컬푸드 사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과, 3차 산업인 로컬푸드 레스토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마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이 30%, 나머지 70%는 주변의 농장에서 공급된다. 로컬푸드와 슬로우 푸드의 인기와 더불어,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자연염색 사업은 체험과 상품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체험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밤의 부산물인 밤껍질을 이용한 자연염색체험은 관광상품으로 널리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참가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연염색제품의 생산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올해 12월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HIT500PLAZA에 입점했다.

문화체험서비스는 크게 보면 농촌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마지가 위치하고 있는 공주 지역의 농촌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면서 우리의 생활 문화가 담겨 있는 농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을 관광자원화 시켜 경제적 모델로 만들어 보려는 취지다. 먼저 공주민속극박물관의 농기구자료관과 민속극자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마지는 앞으로 뮤지엄스테이, 레지던스 교육과 같은 분야와 연계시켜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도영미 대표는 “서기 7세기경의 미마지가 백제문화의 바람을 일본열도에 불러 일으켰다면, 우리 미마지는 농촌문화의 한류를 일으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의 문화발전과 함께 경제적 가치 창출도 할 수 있는 창조적경제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말했다.

◇ 전통을 지켜내는 ‘미마지’

농가맛집 미마지의 도영미(44) 대표는 청송 심씨 4대 독자인 심하용 씨와 결혼해 심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집안의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다.

공주민속극박물관의 관장인 남편 심 씨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도영미씨를 만나 조부 대(代)부터 집안의 숙원 사업이었던 문화사업을 이어받았다. 1996년 시아버지이자 저명한 민속학자이신 심우성 선생이 이 박물관을 개관했고, 이후 2007년

부터 부부가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던 이곳에 2010년에는 농가맛집 ‘미마지’가 개장했다.



도 대표는 ‘미마지’의 유래에 대해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백제인 미마지는 중국 오(吳)나라에서 기악무를 배우고 돌아온 뒤 무왕 13년(612년)에 일본에 귀화해 사쿠라이에서 소년들에게 기악무를 가르쳤다고 기록돼 있다”며 “예술인 미마지는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착안해 공주의 지역문화와 향토음식, 백제의 얼을 충청도는 물론 전국으로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같이 작명했다”고 말한다.

‘미마지’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 시부모를 대신해 시조부모를 모신 도대표가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대표 메뉴인 소민

전골정식을 자랑거리로 삼는다.

소민전골정식의 ‘소민(素民)’은 할아버님 심이석 옹의 호로, 할아버님이 즐겨 드시던 음식을 한상차림으로 차려 내어 집안의 음식도 이어가고 할머니가 80여 년간 할아버님의 밥상을 차려내신 것처럼 손님들을 공손하게 접대하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식단이다. 할머니가 차려내신 밥상처럼 특별한 재료나 비결보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로 정성을 다해 차려낸다는 것이 미마지의 음식철학이다.

또한 농가맛집을 하기 이전부터 박물관을 통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 돌려보낸다’는 우리네 조상들의 정을 살리고 싶었다는 부부. 그래서 볼거리를 보기 전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한다.

도 대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가 밥상을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식 재료만으로 만들어 손님상에 내놓는다”며 “농촌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는 밥상”이라고 강조한다.

◇ 지역 특화된 음식철학 공주밤 음식

미마지의 상차림에는 유독 밤을 이용한 음식이 많다. 공주 지역에는 밤이 유명해서 예로부터 밤을 활용한 음식이 많이 발달했다. 밤밥을 비롯해서 밤양갱, 밤전병 등 밤을 활용한 식단이 미마지의 메뉴판을 장식 중이다. 이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그 땅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 그대로인 로컬푸드 바람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물류와 유통이 발달해서 수입식품과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살고 있는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공주에서 많이 나고 맛있기로 유명한 이 밤은 우리민족이 선사시대부터 먹었던 과일이다. 지금은 기호식품으로 활용되지만 당시에는 구황작물로 먹으며 부족한 식량을 대신하기도 했다. 밤을 이루는 성분은 전분이 대부분으로 당분이 많고, 단당이나 환원당이 함유되어 있다. 수분은 비교적 적지만 육질이 단단해 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 특히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섬유질이 많다. 밤의 효능으로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질환과 위장 질환에 좋은 것을 들 수 있다.

도 대표는 고향 공주에서 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레 조상 대대로 많이 먹었던 이 밤을 활용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연잎밥, 나물밥과 함께 밤밥을 메뉴로 정했다. 여기에 밀가루로 만드는 밀전병 대신에 밤가루를 사용해서 전병을 만들고 묵을 쭈어 찬으로 구성하고, 디저트로 밤양갱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천연 염색 체험도 밤 염색을 주로 한다. 여러 모로 쓸모가 많고 은은한 색을 자랑하는 밤은 미마지의 보물이다.

도 대표는 “전국 최대 밤 생산지인 공주 지역에서 버려지는 밤 껍질의 효능에 주

목해 천연염료로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됐다”며 “항공사에 근무하면서 보고 배운 외국 농촌의 성공사례를 우리 농촌에 접목시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체험을 융합한 농가 수익형 사업모델을 개발·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 백제의 멋과 맛을 이어 가는 도영미 대표

도영미 대표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1997년 결혼하면서 남편 고향인 이곳에 정착했다. 갓 시집 와 주눅 들어 있을 무렵 시할머니가 차려 주던 청송 심씨 집안의 밥상은 도 씨의 인생을 바꿨다.

도 대표는 “시골 면서기 같은 신랑이 좋아서 결혼했다”라며 서울에서 만났지만 동향사람이어서 더 마음이 간 심 씨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도 대표는 사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문화와 예술을 업으로 삼으며 살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게다가 문화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문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 대표는 “인생이 열떨결에 물밀듯이 밀려왔다”라며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을 잠시 회상해 본다.

우리 전통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도 대표는 “박물관이든 체험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가장 정성이 가고 힘든 일은 농가맛집 일이다”라며 찾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 지 이야기 한다.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라는 도 대표는 가족에게 음식을 해 먹이듯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없이는 하기 힘들다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 음식을 주메뉴로 하는 농가맛집의 특성 상 지역에서 찾는 사람들보다 인근 지역이나 타지역에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곳은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운영되는데, 그 이유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뭐든지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딱딱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모든 조미료와 음식 재료를 직접 준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는 슬로푸드인 것이다. 그래서 미마치는 찾는 이들 중 예약을 미리 하지 않은 이들을 돌려 보내는 경우도 많다. 음식이 있어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상을 내어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음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 때문인지, 이곳에서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외지인들이 주고객이지만 모두 단골 고객이 될 정도로 인심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 대표가 손님들과 약속한 음식철학을 저버리지 않는 한 계속될 미마지의 전통이 될 것이다.

“손님이 전에 어떤 것을 먹고 갔는지까지 기억하려고 한다”는 도 대표는 오늘도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그 재미마지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체험객들이 천연 염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남편을 도와 오랜 가업인 박물관 지킴이를 한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인 그는 아직 욕심이 많다.

미마지에는 올해 초 개장한 가양주의 명맥을 이어나갈 전통주체험장이 있다. 이 전통주체험장은 심씨 집안의 옛집 상량목으로 중심을 잡아 목재로 만든 건물이다. 이처럼 이 부부는 앞으로 전통의 바탕 위에 오늘날의 삶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미마지’ 내 공주민속극박물관

충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의 아트막한 동산 위에 위치한 공주민속극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에 쓰이는 인형과 각종 탈은 물론, 반주악기, 1인극 연극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꾼의 이야기책, 불교 영등놀이의 그림 등 민속극에 쓰이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한다. 민속학자 심우성(沈雨晟) 선생이 수집한 민속연극용 인형, 가-면(탈), 전통악기, 무속자료, 각종 연희에 사용되는 소도구, 서적 등을 전시해 놓은 전문박물관이다.

전시실은 민속극자료관과 농기구자료관으로 나뉘며, 민속극자료관에는 굿에 관련된 자료, 각종 그림자놀이 인형, 탈춤에 쓰이는 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탈이 가장 많은데, 양주별산대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통영오광대, 봉산탈춤, 수영야류, 동래야류, 강령탈춤, 봉산탈춤, 남사당놀이 덧뵈기, 처용무, 꼭두각시놀음, 통영·고성·기산오광대, 만석중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탈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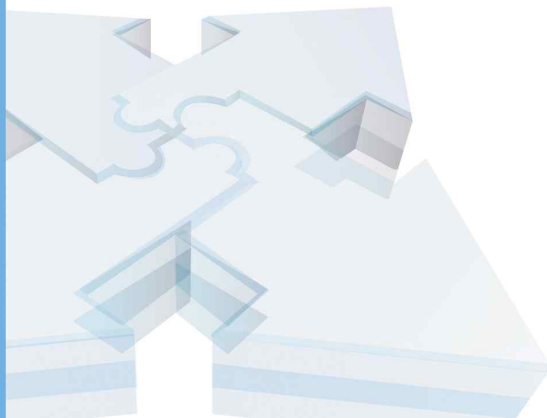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향토문화컨텐츠인 지역 고유의 역사유산, 전통생활양식, 공예문화 등을 문화상품화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도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맞춤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6차 산업과 향토문화컨텐츠 중심의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 싶다”며 “‘미마지’ 혼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 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10월)			소비(10월)	물가(11월)		대외거래(11월)		고용(11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06.6	106.0	126.9	109.5	106.57	107.79	47,899	43,101	26,230	25,530	2.7
서울	103.6	101.6	111.3	112.4	106.44	108.08	4,945	11,053	5,348	5,156	3.6
부산	100.4	96.1	148.1	98.5	108.07	108.67	1,167	1,111	1,707	1,654	3.1
대구	117.1	115.3	178.9	120.4	108.15	108.73	630	297	1,247	1,207	3.2
인천	107.5	103.6	135.6	101.3	105.46	106.70	2,364	3,377	1,508	1,452	3.7
광주	107.5	111.0	110.7	96.1	106.41	107.59	1,444	376	744	725	2.5
대전	103.8	103.7	112.6	107.2	106.09	107.54	312	268	770	751	2.4
울산	112.4	112.4	113.2	103.6	107.32	107.88	8,359	7,098	557	543	2.5
경기	119.0	118.7	122.8	112.5	105.99	107.45	8,989	8,708	6,294	6,149	2.3
강원	118.5	115.2	176.3	116.0	106.17	107.45	165	133	726	714	1.6
충북	126.8	115.7	157.8	117.6	106.78	107.79	1,100	502	823	807	2.0
충남	112.7	113.5	136.4	136.3	107.02	107.88	5,571	2,830	1,204	1,176	2.4
전북	103.0	104.6	114.3	92.9	107.11	107.95	793	376	903	893	1.0
전남	98.8	98.6	110.6	88.6	107.59	108.01	3,338	3,587	937	917	2.1
경북	100.4	95.5	125.1	95.5	107.27	107.73	4,821	1,376	1,466	1,423	3.0
경남	97.1	93.4	122.4	107.1	106.45	107.73	3,885	1,981	1,683	1,653	1.8
제주	119.2	117.7	147.7	111.2	106.05	107.08	15	28	316	311	1.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10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10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상승
- 10월 생산과 출하가 증가, 재고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2월 기업경기는 다소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경기 전망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 및 고용은 소폭의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소매점판매액 등 소비는 증가, 대외거래는 소폭 감소함

경기

- 10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9% 상승한 115.2를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전월대비 0.6p 상승
- 12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상승(제조업 86, 비제조업 81)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경쟁심화, 환율 등이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12월 시장경기전망은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은 상승한 반면, 업황, 매출, 마진, 자금 사정 등 주요 항목에서 하락함

산업활동

- 10월 광공업 생산지수 8.0%(118.2), 출하지수 6.7%(119.2), 재고지수 14.5%(136.0)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광공업생산은 식료품, 제1차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의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비금속광물제품, 음료, 가구 등에서 감소

소비 및 물가

- 10월 대형소매점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한 137,074백만원, 지수는 136.3
- 11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85,131대로 전월대비 0.3%(+2,437대) 증가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8(+1.2%)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생활물가지수 107.0(+0.4%)로 상승

수출입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55억 71백만달러, 반도체 5.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4.3%, 전자응용기기 -5.9%, 석유제품 -18.7% 등)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28억 30백만달러, 곡실류 +458.3%, 원유 -5.3%, 석유제품 -12.6%, 석탄 -23.7% 등)
- 11월 무역수지는 27억 41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5억 81백만달러 감소)

고용

- 11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1,204천명,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1.8%p 증가한 65.6%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한 1,176천명(농림어업 179천명, 광공업 252천명, 건설업 7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03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6천명 등)
- 11월 실업률 2.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실업자 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2% 증가

금융

- 10월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50조 5,565억원으로 증가세 지속, 여신 잔액은 42조 1,457억원으로 증가
- 10월 금융기관 총 수신 증감액 +5,626억원, 여신 증감액 +3,773억원
- 10월 어음부도율 0.07%로 전월대비 0.1%p 하락
- 10월 부도금액 6억 6천만원으로 전월보다 9억 5천만원 감소

건설 및 부동산

- 11월 건축허가면적 485,898㎡로 전월대비 36.1%, 착공면적은 365,483㎡로 43.6% 각각 감소
-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102.1로 전월대비 0.5%, 전세가격지수 104.0으로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아산, 논산)
- 11월 토지거래는 11,4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면적은 23.6% 각각 감소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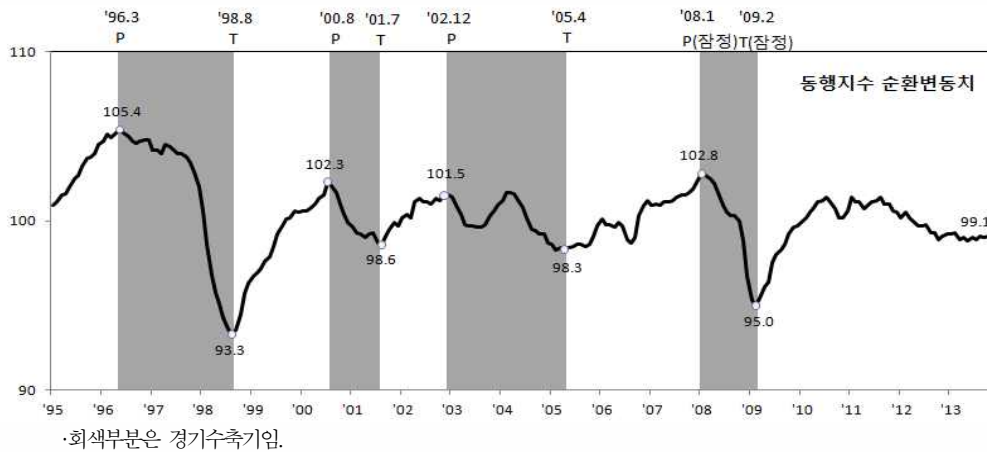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10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산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지수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5% 상승한 115.7임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보다 0.1p 상승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10=100)

구분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동행종합지수	112.3	112.9	113.2	113.9	114.2	114.9	115.1	115.7
·전월비(%)	0.0	0.5	0.3	0.6	0.3	0.6	0.2	0.5
○ 순환변동치	98.9	99.0	98.8	99.0	98.9	99.1	99.0	99.1
·전월차(p)	-0.4	0.1	-0.2	0.2	-0.1	0.2	-0.1	0.1



- 10월 선행종합지수는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8% 상승한 115.9임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로 전월대비 0.4p 상승

선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분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선행종합지수	110.7	111.3	112.0	113.0	113.9	114.7	115.0	115.9
·전월비(%)	0.3	0.5	0.6	0.9	0.8	0.7	0.3	0.8
○ 순환변동치	99.5	99.6	99.9	100.5	100.9	101.2	101.0	101.4
·전월차(p)	-0.1	0.1	0.3	0.6	0.4	0.3	-0.2	0.4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6p 상승한 100.1을 나타냄
-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9% 상승한 115.2를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 분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동행종합지수	111.1	112.0	112.4	112.8	113.1	113.7	114.1	115.2
·전월비(%)	0.0	0.8	0.3	0.4	0.2	0.5	0.4	0.9
○ 순환변동치	98.3	98.9	99.0	99.1	99.1	99.4	99.5	100.1
·전월차(p)	-0.3	0.5	0.1	0.1	0.0	0.3	0.1	0.6

주 : p는 잠정치임.

- 10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입액 등 모든 구성지표가 상승하였음
- 비농가취업자수(+0.1%), 산업생산지수(+1.4%),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4.0%), 전력사용량(+1.8%), 수출액(+3.8%), 수입액(+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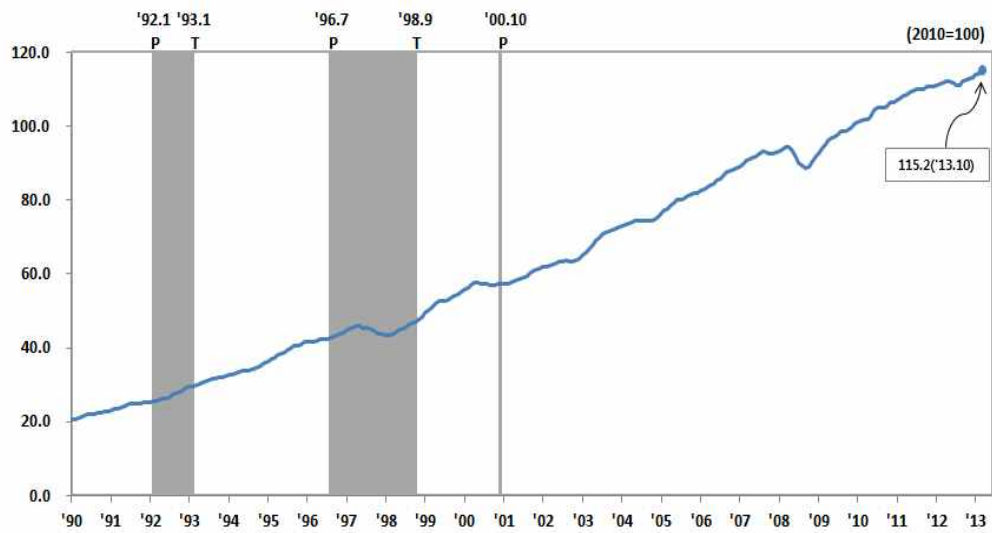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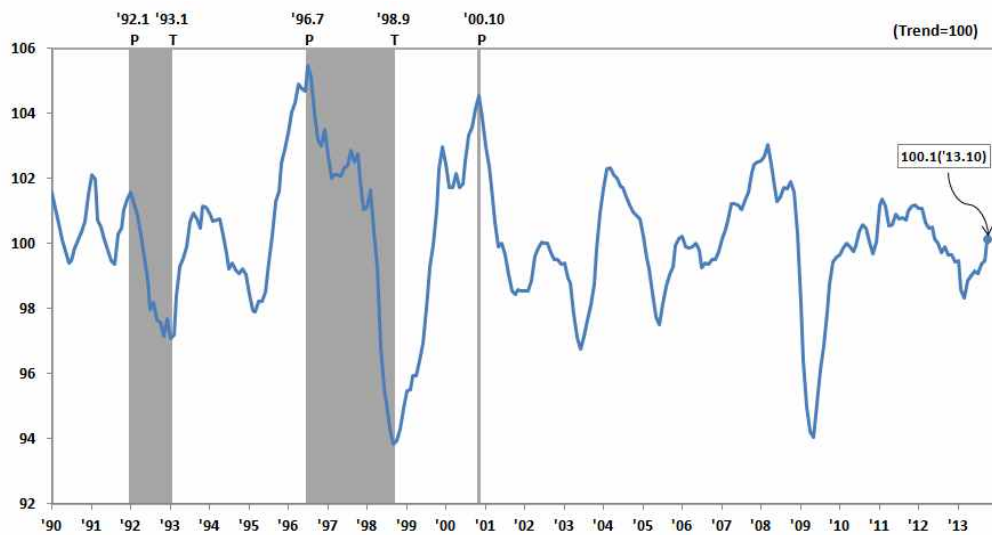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3.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비농가취업자수	1.5	1.7	1.4	0.6	0.5	0.5	0.6	0.1
산업생산지수	-0.3	-0.5	0.0	-0.4	0.7	1.4	0.8	1.4
대형소매점판매지수	-8.3	1.1	-0.5	1.0	-1.9	-0.6	1.0	4.0
전력사용량	0.6	1.1	1.1	0.8	0.6	1.4	0.9	1.8
수출액(실질)	-0.1	-2.7	-1.3	-0.6	0.3	1.9	0.8	3.8
수입액(실질)	1.6	3.5	-1.9	1.2	0.4	-0.6	-2.1	0.1

주 : 증감률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12월 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제조업 업황BSI는 86로 전월(84)보다 2p, 자금사정전망BSI 96로 전월(92)보다 4p 각각 상승
- 12월 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와 자금사정전망BSI도 모두 전월대비 상승
 - 비제조업 업황BSI는 81으로 전월(73)보다 8p, 자금사정전망BSI는 88로 전월(84)보다 4p 각각 상승
 - 충남의 제조업, 비제조업 업황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BSI 추이가 기준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은 상태지만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제조업의 주요 제조업의 주요 BSI 전망 추이

구분	'13.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¹⁾	83	81	75	79	83	84	85(78)	+1(-5)
충 남 ²⁾	83	82	76	80	83	84	86	+2
매출	102	98	91	93	93	98	101	+3
생산	102	108	99	95	95	100	107	+7
신규수주	95	93	86	93	96	102	103	+1
채산성	87	91	88	89	95	91	94	+3
제품재고	103	107	116	109	114	109	112	+3
인력사정	86	91	88	87	89	88	93	+5
자금사정 ¹⁾	94	98	94	92	94	92	95(88)	+3(0)
충 남 ²⁾	94	98	95	92	94	92	96	+4
외부자금수요	105	103	109	109	105	104	101	-3
자금조달사정	96	101	100	101	102	97	97	0

주 : ()내는 전국 기준, 업황 및 자금사정을 제외한 수치는 대전충남의 통합 수치임.

1) 대전·충남 업황 수치.

2) 기존 대전·충남 통합하여 공표하였던 업황 및 자금사정BSI가 2012년 1월부터 지역이 분리되어 공표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BSI 전망 추이

구분	'13.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73	70	72	76	77	76	83(72)	+7(+2)
충 남	73	67	70	77	76	73	81	+8
매출	82	76	79	84	82	83	86(80)	+3(+1)
채산성	82	83	84	83	84	83	88(82)	+5(+1)
인력사정	87	82	79	87	86	89	82(87)	+7(0)
자금사정	85	82	84	86	88	88	90(81)	+2(+2)
충 남	87	80	84	83	89	84	88	+4
외부자금수요	103	103	100	101	102	100	103	+3
자금조달사정	93	92	91	95	93	93	96	+3

$$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 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시장경기 동향]

- 11월 충남의 시장경기는 전월보다 업황, 매출, 마진,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 등 모든 주요 항목에서 상승
 - 상승지수 : 업황(+24.5p), 매출(+29.6p), 마진(+17.9p), 매입원가(+2.4p), 상품판매가격(+8.7p), 자금사정(+18.7p), 구매고객수(+25.8p)
 - 의류 및 신발 등 제품 특성상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되고, 김장철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요가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임
- 12월 시장경기 전망은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은 상승한 반면, 업황, 매출, 마진, 자금사정, 구매고객수는 하락
 - 상승지수 : 매입원가(+1.4p), 상품판매가격(+2.4p)
 - 하락지수 : 업황(-27.3p), 매출(-36.9p), 마진(-23.5p), 자금사정(-20.7p), 구매고객수(-26.1p)
 - 경기침체, 날씨·기후 영향, 유동인구 또는 배후상권 인구 감소 등이 주요 악화 요인으로 조사됨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3.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전망)
업황	전국	57.0	47.9	41.6	68.6	58.1	67.3	82.4
	충남	53.6	49.4	53.9	84.6	55.4	79.9	78.6
매출	전국	57.2	47.6	40	70.2	58.0	71.9	86.2
	충남	57.2	49.7	53.2	82.2	58.3	87.9	74.3
마진	전국	62.3	52.3	43.8	67.7	64.3	72.8	84.7
	충남	55.4	56.2	55.6	75.5	68.6	86.5	75.2
매입 원가	전국	113.6	116.6	119.1	123.4	111.6	114.8	111.2
	충남	115.3	120.4	124.5	124.0	107.8	110.2	110.8
상품 판매가격	전국	94.6	94.2	91.9	102.2	94.6	95.7	101.3
	충남	99.5	96.9	104.1	104.8	91.1	99.8	106.8
자금 사정	전국	60.0	54.2	44.7	64.2	60.5	68.6	82.1
	충남	59.6	58.3	54.2	74.6	57.6	76.3	76.3
구매 고객수	전국	55.4	44.8	40.7	68.8	57.8	68.6	84.3
	충남	54.8	49.7	52.4	86.6	55.4	81.2	79.3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10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0%, 전월대비 14.5% 각각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음료, 가구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식료품, 제1차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 10월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6.7%,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4.5% 각각 증가
 - 출하는 석유정제, 음료,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제1차금속, 식료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 재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장비, 의료정밀광학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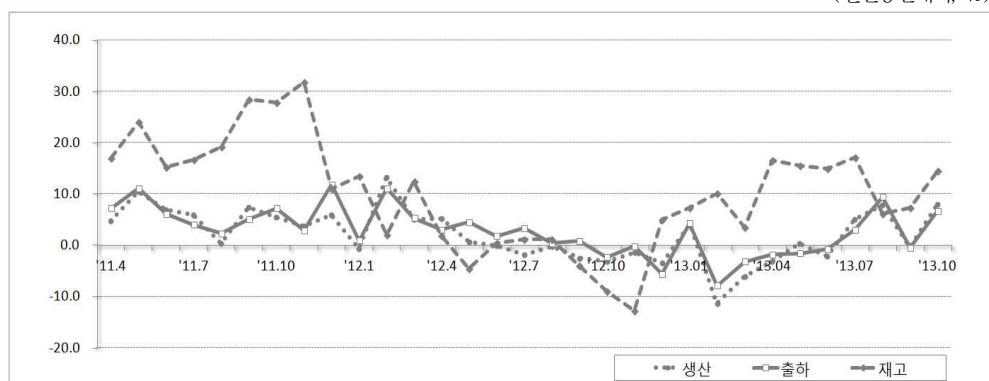
(2010=100.0,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P	10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07.6	106.6	102.5	99.6	110.8	3.0	11.2
	출 하	106.6	105.2	102.9	99.5	109.7	2.9	10.3
	재 고	115.5	123.9	123.6	124.9	126.0	9.1	0.9
충남	생 산	109.4	111.8	109.0	103.2	118.2	8.0	14.5
	출 하	111.7	112.2	114.3	107.1	119.2	6.7	11.3
	재 고	118.8	143.4	129.6	128.2	136.0	14.5	6.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원지수).

충남의 광공업 산업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10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전월대비 10.2% 감소
 -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37,074백만원, 지수는 136.3으로 나타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전월대비 9.5%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경성금액, 불변지수, 2010=100,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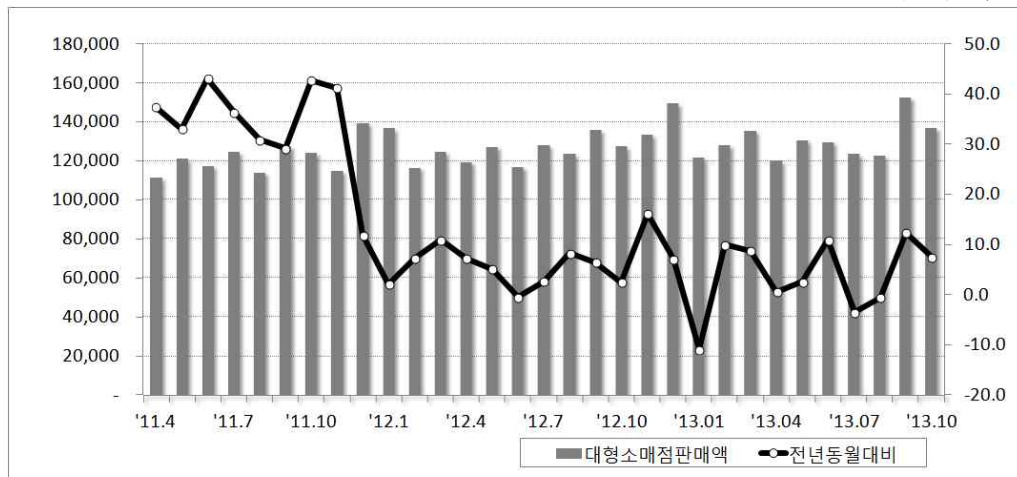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p	10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판매액지수	109.5	103.0	103.2	115.8	109.5	0.0	-5.4
	판매액	6,222,786	5,875,347	5,914,122	6,723,541	6,309,072	1.4	-6.2
충남	판매액지수	128.6	124.7	122.9	150.6	136.3	6.0	-9.5
	판매액	127,452	123,643	122,872	152,593	137,074	7.5	-10.2

주 : 기 공표되었던 대형마트판매액은 '12.10월부터 공표 중단.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충남의 대형소매점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주 : 대형소매점판매액(좌측), 전년동월대비(우측).

[자동차 등록]

- 11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11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85,131대로 전년동월보다 29,809대 증가, 전월보다 2,437대 증가
 - 승용차(+0.3%), 특수화물(+0.8%), 화물차(+0.2%)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승합차(-0.1%)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특수화물(+7.7%), 승용차(+4.2%), 화물차(+1.8%)는 증가, 승합차(-0.1%)는 감소
-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 지속에는 2012.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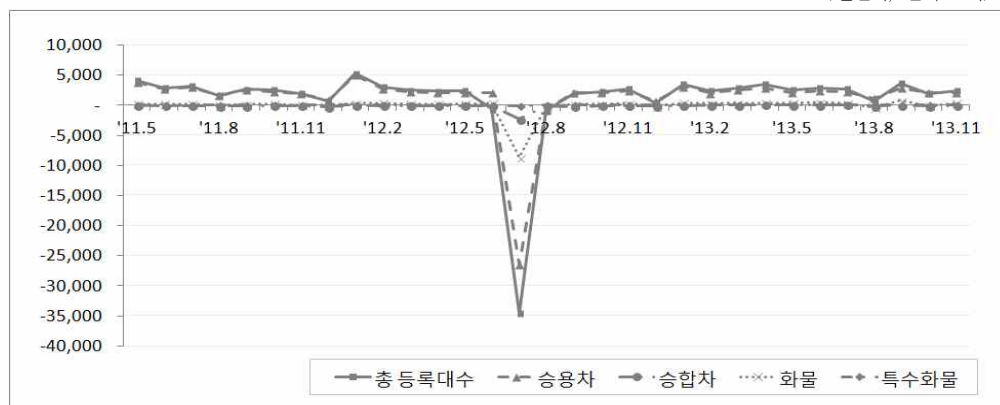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55,322	877,022	880,749	882,694	885,131	29,809	2,437
차종별	승용	615,090	634,179	637,043	639,168	641,222	26,132	2,054
	승합	46,900	46,986	47,046	46,904	46,843	-57	-61
	화물	190,447	192,807	193,591	193,541	193,959	3,512	418
	특수화물	2,885	3,050	3,069	3,081	3,107	222	26
용도별	자가용	815,333	836,569	840,235	841,798	844,195	28,862	2,397
	관용	4,063	4,325	4,279	4,321	4,280	217	-41
	영업용	35,926	36,128	36,235	36,575	36,656	730	81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11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8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전월대비 보합
 - 농축수산물(-4.4%)은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1.1%), 전기·수도·가스(+4.4%), 서비스(+1.5%)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전월대비 0.2%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96.1로 전년동월대비 12.5%, 전월대비 5.1% 각각 하락
 - 신선채소(-16.8%), 신선과실(-15.2), 신선어개(-3.0%), 기타신선(-20.2) 등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모두 하락

소비자물가 동향

(2010=1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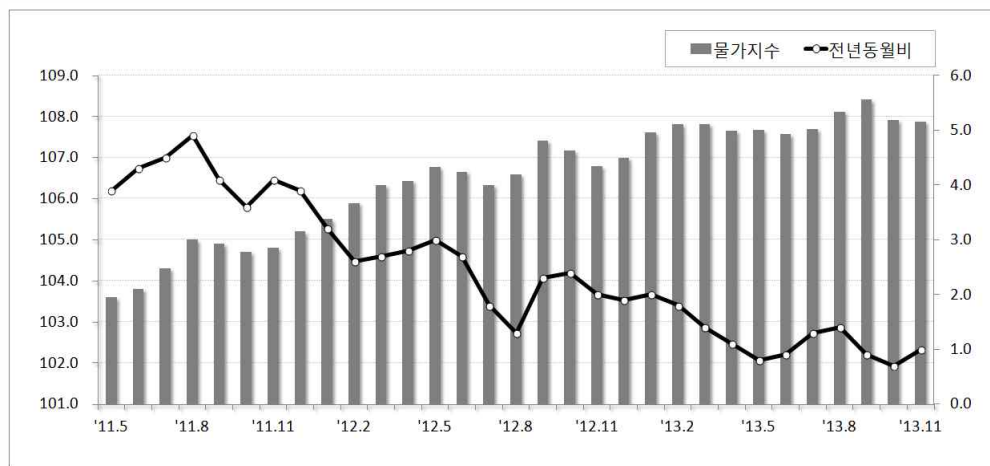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6.5	107.9	108.1	107.8	107.8	1.2	0.0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6.8	108.1	108.4	107.9	107.9	1.0	0.0
	상품 성질별	상 품	109.0	109.9	110.6	109.6	109.6	0.5	0.0
		서비스	104.7	106.4	106.3	106.3	106.3	1.5	0.0
	생활물가지수		106.6	107.7	108.0	107.2	107.0	0.4	-0.2
	신선식품지수		109.9	112.7	110.4	1014.2	96.1	-12.5	-5.1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주 : 2013.11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으로 수치변동(2012.1월~ 현재)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11월 충남의 수출은 55억 71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 전월대비 10.4% 각각 감소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전자응용기기,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세 주춤
- 11월 충남의 수입은 28억 30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 전월대비 2.3% 각각 감소
 -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원유를 비롯하여 석유제품, 석탄 등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11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7억 41백만달러 흑자를 기록
 - 전월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전월(33억 22백만불)보다 5억 81백만달러 흑자 감소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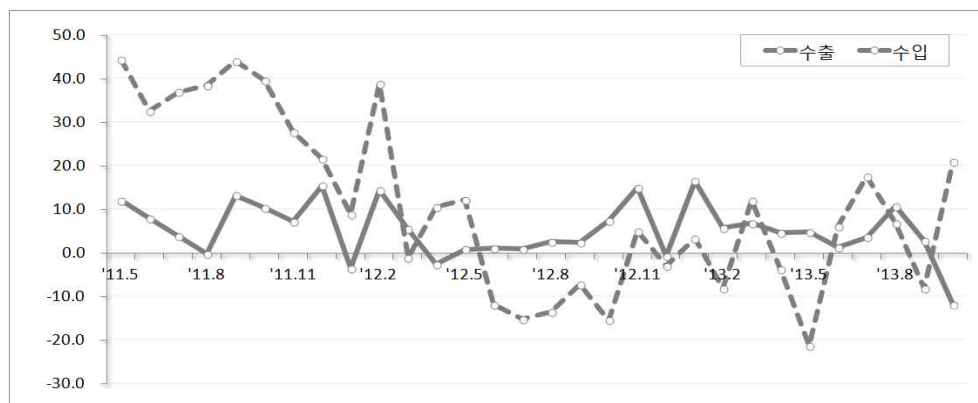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P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7,805	46,292	44,664	50,488	47,899	0.2	-5.1
	수입	43,382	41,565	41,040	45,612	43,101	-0.6	-5.5
	무역수지	4,423	4,727	3,624	4,876	4,798	-	-
충남	수출	5,743	5,589	5,715	6,218	5,571	-3.0	-10.4
	수입	2,874	2,646	2,747	2,896	2,830	-1.5	-2.3
	무역수지	2,869	2,943	2,968	3,322	2,741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11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1)	수출액	증감률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총액	5,571	-3.0	-10.4	100.0
1	반도체	1,713	5.2	-3.4	30.7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17	-24.3	-8.9	14.7
3	전자응용기기	367	-5.9	-24.6	6.6
4	석유제품	366	-18.7	-38.1	6.6
5	무선통신기기	312	56.0	3.3	5.6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1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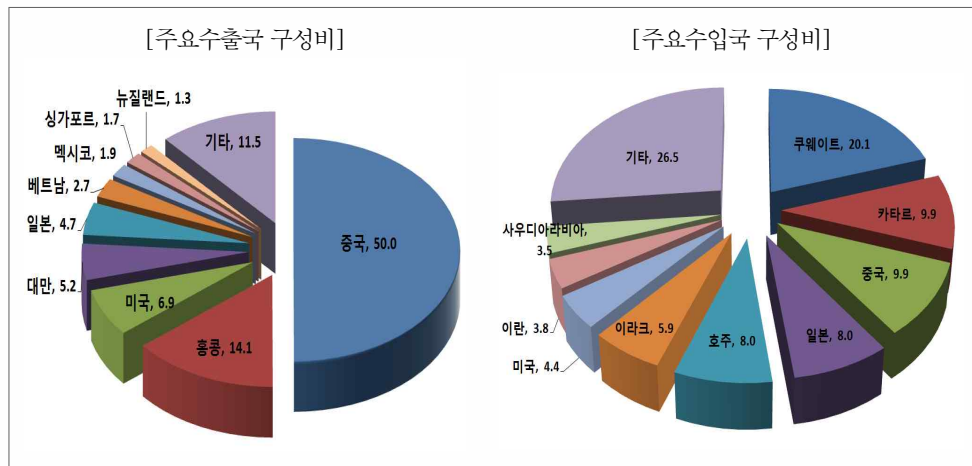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1)	수입액	증감률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입총액	2,830	-1.5	-2.3	100.0
1	원유	1,442	-5.3	11.5	51.0
2	석유제품	222	-12.6	-28.2	7.8
3	석탄	145	-23.7	-22.5	5.1
4	곡식류	67	458.3	-6.9	2.4
5	강판제품및기타철강제품	56	86.7	154.5	2.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1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용

[경제활동인구]

- 11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836천명으로 전년동월(1,751천명)보다 85천명(+4.8%)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204천명으로 전년동월(1,117천명)보다 87천명(+7.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1.8%p 증가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652	26,074	26,186	26,268	26,230	2.3	-0.1
	충남	1,117	1,210	1,216	1,208	1,204	7.8	-0.3
	남자	656	722	720	724	726	10.7	0.3
	여자	461	489	496	484	478	3.7	-1.4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61.4	61.8	62.1	62.2	62.1	0.7	-0.1
	충남	63.8	66.3	66.5	65.9	65.6	1.8	0.3
	남자	75.2	78.7	78.4	78.6	78.8	3.6	0.2
	여자	52.5	53.7	54.4	53.1	52.3	-0.2	-0.8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 전월 증감을 나타냄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11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1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하며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 되는 모습을 보이나 2개월 연속 전월대비 소폭 감소함
-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는 180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3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는 10천명(+5.6%), 고령층 취업자는 27천명(+8.7%)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광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 주요 산업에서 증가함
 - 농림어업 179천명(-3.4%), 도소매·음식숙박업 203천명(-0.4%)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광공업 252천명(+12.1%), 건설업 74천명(+5.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6천명(+12.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1천명(+16.7%)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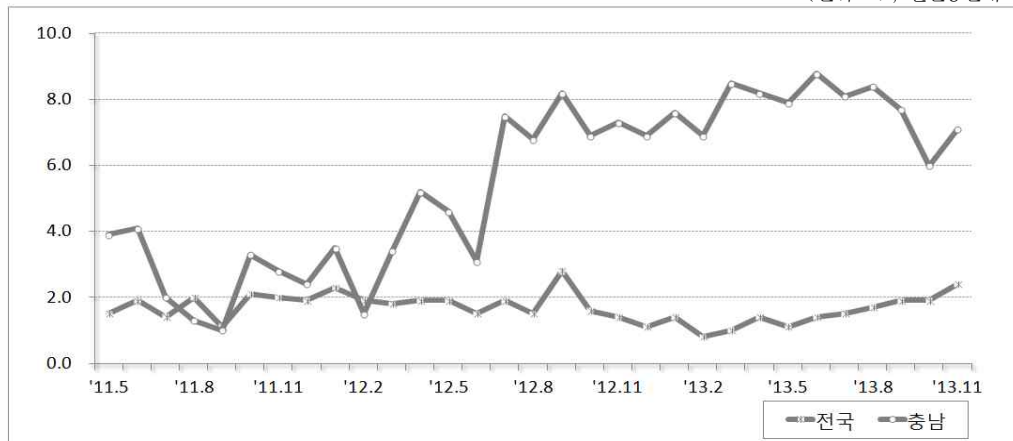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국	24,941	25,291	25,466	25,545	25,530	2.4	-0.1
	충남	1,097	1,180	1,184	1,177	1,176	7.1	-0.1
청년층 (15~29세)	전국	3,762	3,808	3,813	3,773	3,816	1.4	1.1
	충남	170	179	173	169	180	5.6	6.0
고령층 (50세이상)	전국	5,536	5,875	5,971	6,038	5,977	8.0	-1.0
	충남	311	346	351	349	338	8.7	-3.2
	55~59세	101	113	114	111	109	8.0	-2.2
	60세이상	210	233	237	238	229	9.1	-3.7
산업별	농림어업	185	196	199	195	179	-3.4	-8.2
	광공업	225	250	246	247	252	12.1	2.2
	건설업	70	75	77	74	74	5.7	0.3
	도소매 음식숙박업	204	197	201	197	203	-0.4	3.0
	사업·개인·공 공서비스업	327	365	362	364	366	12.1	0.6
	전기·운수·통 신금융업	87	96	100	100	101	16.7	1.0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11월 충남의 실업자는 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대비 0.2%p 하락

6. 금융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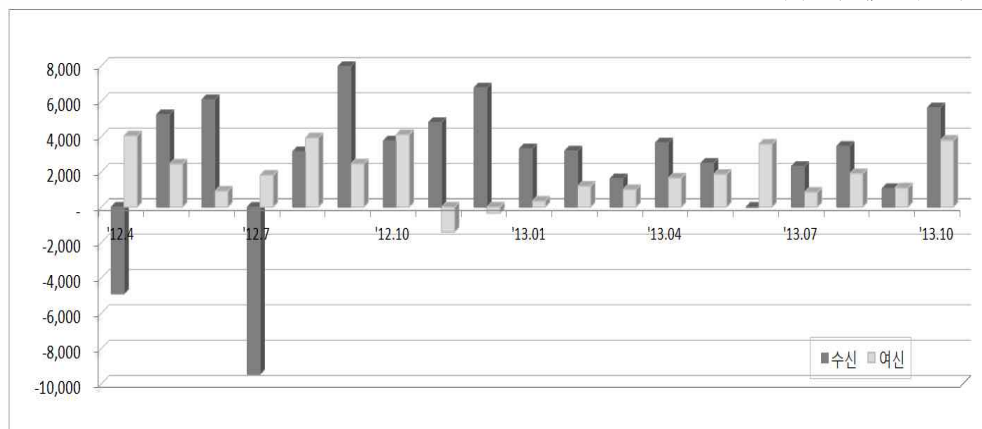
- 10월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9조 6,636억원, 비은행기관 30조 8,929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50조 5,565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부가세 납부에 따른 자금인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 전환[9월 -1,144억원 → 10월 +1,432억원]
- 비은행기관 : 농수산물 판매대금, 공공기관의 단기자금 등이 유입되며 큰 폭 증가 전환[9월 +2,192억원 → 10월 +4,194억원]
- 총 수신증감액 : 9월 +1,048억원 → 10월 +5,626억원

[여신]

- 10월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6억 1,607억원, 비은행기관 15조 9,850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2조 1,457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확대되고 아파트 분양 등으로 주택대출도 증가 전환[9월 +483억원 → 10월 +3,691억원]
- 비은행기관 : 농수산물 출하대금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증권신탁계정 어음매입이 줄어들면서 감소[9월 +594억원 → 10월 +82억원]
- 총 여신증감액 : 9월 +1,077억원 → 10월 +3,773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10월 충남의 부도율은 0.07%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지역별로는 당진 0.23%, 아산 0.14%, 천안 0.06%, 천안 0.06%로 부도율이 나타남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연중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충남	0.38	0.25	0.73	0.23	0.17	0.07	-0.10	-0.18
천안	0.47	0.32	0.53	0.16	0.19	0.06	-0.13	-0.26
공주	0.41	0.31	0.07	-	-	-	-	-0.31
홍성	0.09	0.1	-	0.08	0.08	-	-0.08	-0.10
아산	0.35	0.25	4.22	1.57	0.81	0.14	-0.37	-0.11
당진	1.49	-	-	-	0.05	0.23	0.18	0.23
서산	0.01	-	0.03	-	-	-	-	-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10월중 부도금액은 6억 6천만원으로 전월보다 9억 5천만원 감소
 - 제조업 : 9월 8억 8천만원 → 10월 3억 2천
 - 건설업 : 9월 2억 4천만원 → 10월 1억 6천
 - 서비스업 : 9월 3억 6천만원 → 10월 1억 5천
- 10월중 부도업체수는 없음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10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6.2	61.5	1.4	8.8	3.2	-5.7	-5.6
	건설업	28.8	13.6	11.9	2.4	1.6	1.4	-0.8
	서비스업	8.2	3.4	4.8	3.6	1.5	-1.4	-2.1
	기 타	0.1	3.4	0.1	1.3	0.3	0.1	-1.0
	합 계	43.3	79.1	18.2	16.1	6.6	-5.6	-9.5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	4	-	-	-	-	-
	건설업	1	1	1	2	-	-	-2
	서비스업	1	-	4	1	-	-	-1
	기 타	-	-	-	-	-	-	1
	합 계	2	5	5	3	-	-	-3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10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38개로 전월(162개)보다 76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11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485,898㎡로 전년동월대비 26.3%, 전월대비 36.1% 각각 감소
- 11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26.4%), 상업용(22.7%), 공업용(22.9%)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659,328	966,712	841,477	760,401	485,898	-26.3	-36.1
주거용	266,283	256,247	379,360	296,187	128,203	-51.9	-56.7
상업용	140,170	381,910	109,592	165,861	110,495	-21.2	-33.4
농수산업	45,922	18,645	19,687	31,260	35,183	-23.4	12.5
공업용	143,699	157,929	184,113	85,662	111,078	-22.7	29.7
기타	63,254	151,981	148,725	181,431	100,939	59.6	-44.4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통계 현황,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 11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365,483㎡로 전년동월대비 43.6% 전월대비 74.4% 각각 감소
- 11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4.2%), 상업용(23.5%), 주거용(23.1%)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647,657	477,506	866,764	1,426,420	365,483	-43.6	-74.4
주거용	100,058	122,745	316,301	872,767	84,593	-15.5	-90.3
상업용	63,546	97,080	118,698	130,313	85,881	35.1	-34.1
농수산업	69,679	44,721	12,086	31,585	28,049	-59.7	-11.2
공업용	179,701	150,318	125,636	137,751	124,941	-30.5	-9.3
기타	234,674	62,642	294,043	254,004	45,019	-80.8	-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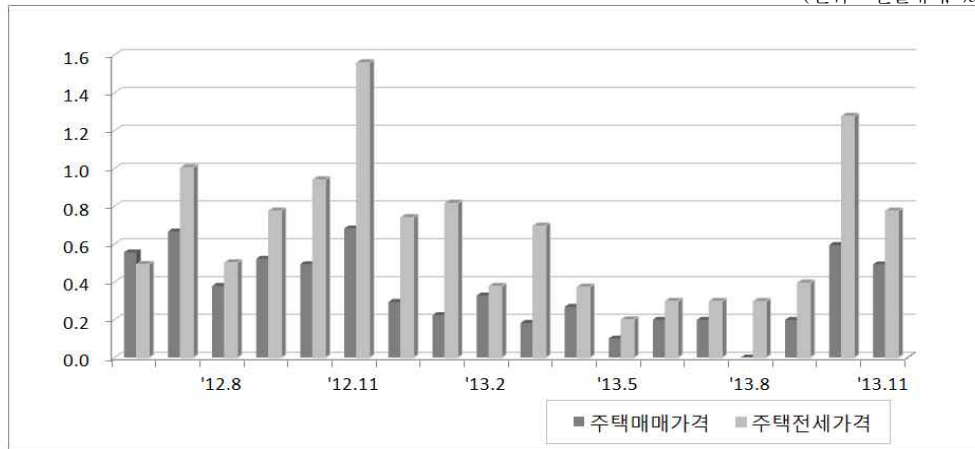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통계 현황,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11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1로 전년동월대비 3.2%,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논산에서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난으로 인한 매매 전환수요가 발생하며 가격이 상승하였고, 아산에서는 테크노밸리 및 향만개발과 미8군 기지 이전 등이 호재로 작용함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논산(0.55%), 아산(0.48%) 지역
- 11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4.0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충남은 아산에서 기존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 및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 등 주택매매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상승함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1.2%), 천안 동남구(0.72%) 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11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1,40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전월대비 7.2% 각각 감소
 - 토지거래 면적은 11,699천㎡로 전년동월대비 23.6%, 전월대비 16.8% 각각 감소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필지	13,271	9,722	9,165	12,292	11,403	-14.1	-7.2
면적	15,317	12,931	9,945	14,058	11,699	-23.6	-16.8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국토교통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신흥국 경제 둔화 우려가 여전
- 또한 美 채무한도 상향논의가 내년초로 이연되어 재정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미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요인도 여전

미국

- 미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확정치)이 2.5% 성장에 이어 3/4분기 3.6% 성장
-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의 산업생산은 10월 소폭 하락, 소매판매,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의 회복 등 투자·소비·고용부문 회복 모멘텀이 확대되는 모습

중국

- 중국 경제는 '13. 3/4분기 GDP성장률이 7.8%로 전분기(7.5%)보다 소폭 개선
- 최근 산업생산, 소비 등 실물지표의 꾸준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정치·사회 등 전면적 개혁을 달성할 위한 9대 중점사항(자원배분에서의 시장기능 강화, 사유재산 중요성 강조, 농민 재산권 보호 등)을 선정하여 발표함(11.12일 3중전회)

일본

- 일본 경제는 '13. 3/4분기 GDP성장률이 0.3%(전기비)로 전분기(0.9%)에 비해 회복세 주춤
- 물가는 안정적이고 산업생산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외거래의 증가폭이 확대됨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13. 3/4분기 GDP성장률이 0.1%로 전분기(0.3%)에 이어 2분기 연속 회복세
-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그간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실업률이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불안요인은 상존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3.6% 성장
- 10월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의 산업생산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소비·투자·고용부문의 개선세가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
 - 최근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기업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ISM제조업지수는 11월 57.3을 기록하여 '11.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 * ISM제조업지수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 한 것.
 -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증가하고,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75.1을 기록하여 전월(73.2)에 비해 상승하는 등 소비회복 모멘텀이 지속
 - 10월 실업률은 7.3%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20.3만명으로 예상(18.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고용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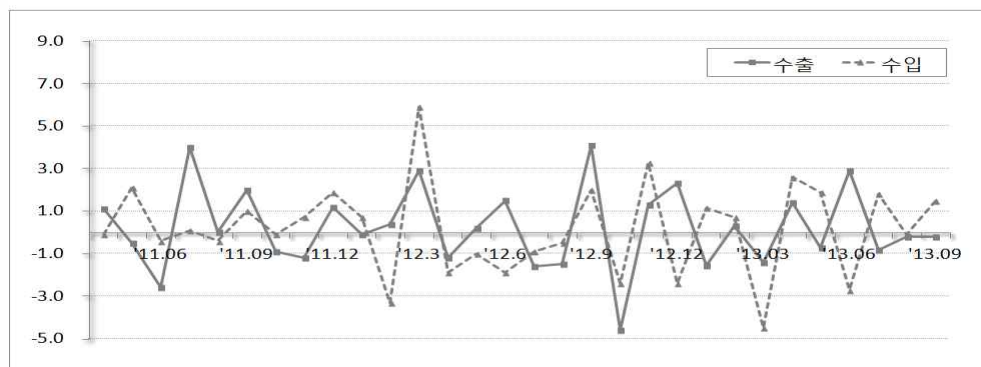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3.6	0.2	0.0	0.4	0.7	-0.1
소매판매		5.3	0.7	0.4	0.2	-0.1	0.4
물가	생산자 ¹⁾	1.9	0.3	-0.2	0.4	-0.4	-0.2
	소비자	2.1	0.2	0.0	0.1	0.1	-0.1
무역 ²⁾	수출	4.4	3.1	-0.8	-0.2	-0.2	-
	수입	2.8	-3.0	1.8	-0.1	1.5	-
실업률 ³⁾		8.1	7.6	7.4	7.3	7.2	7.3
주가지수 ⁴⁾		13,104.1	14,909.60	14,810.3	15,129.7	15,129.7	16,086.4

주 : 1) 최종재 기준 2) 국제수지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후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12)/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3-51호)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 7.8%(전년동기대비)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됨
 - 中 정부는 경제·정치·사회 등 전면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9대 중점사항(자원배분에서의 시장기능 강화, 사유재산 중요성 강조, 농민 재산권 보호 등)을 선정하여 발표(11.12, 3중전회)하는 등 변동요인을 작용할 가능성 큼
- 10월 산업생산은 10.3%, 소매판매는 13.3%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50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지속
-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 수입은 7.6% 각각 증가
 - 수출·입 모두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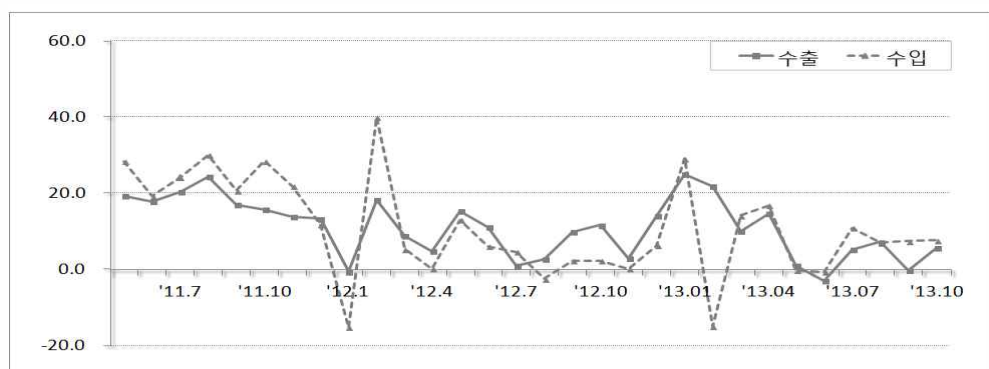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10.0		8.9	9.7	10.4	10.2
소매판매	14.3		13.3	13.2	13.4	13.3
물가 ¹⁾						
생산자	-1.7		-0.6	-0.3	0.1	0.2
소비자	2.6		0.0	0.1	0.5	0.8
무역 ²⁾						
수출	7.9		-3.1	5.1	7.2	-0.3
수입	4.3		-0.7	10.9	7.0	7.4
주가지수 ³⁾	2,265.90		1,979.21	1,993.80	2,098.38	2,174.67
						2,141.61

주 : 1) 전월대비, 2) 수출 FOB, 수입 CIF 기준, 3)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12)/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3-51호)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본

- 일본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은 0.3%(전기비) 성장하여, 2/4분기(0.9%)에 비해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
-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물가는 2012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인 모습
 -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 소매판매는 1.0% 감소
 -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증가, 생산자물가도 0.1% 감소
- 수출은 2월 증가세 반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6%, 수입은 26.2% 각각 증가
-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0% 수준을 유지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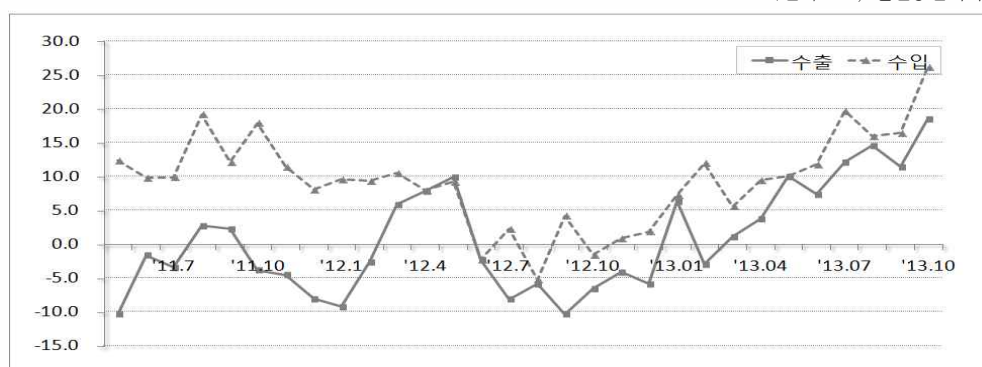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¹⁾	-0.3	-3.1	3.4	-0.7	1.5	0.5
소매판매 ¹⁾	1.8	-0.2	-1.7	0.9	1.8	-1.0
물가	생산자 ²⁾	-0.8	0.1	0.6	0.3	0.3
	소비자 ³⁾	0.0	0.0	0.2	0.3	0.1
무역 ⁴⁾	수출	-2.7	7.4	12.2	14.6	11.5
	수입	3.8	11.8	19.7	16.0	16.5
실업률 ⁵⁾	4.2	3.9	3.8	4.1	4.0	4.0
주가지수 ⁶⁾	10,395	13,677	13,668	14,455	14,456	14,328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전기대비, 2010=100 3) 전기대비, 2005=100 4) 수출 FOB, 수입 CIF, 5) 계절변동조정 후 6)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12)/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3-51호)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 0.1%(전기대비)로 전분기보다 성장세가 위축됨
 -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선진으로 그간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확고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함
- 9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각각 감소
 - 산업생산지수는 8월 일시적으로 증가세로 전화되었으나, 9월 다시 하락 반전됨
 -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가 7월에 이어 4달간 기준치 50을 상회하는 51.6을 기록
- 9월 수출은 1.0% 증가, 수입은 0.3% 감소
- 10월 실업률은 12.1%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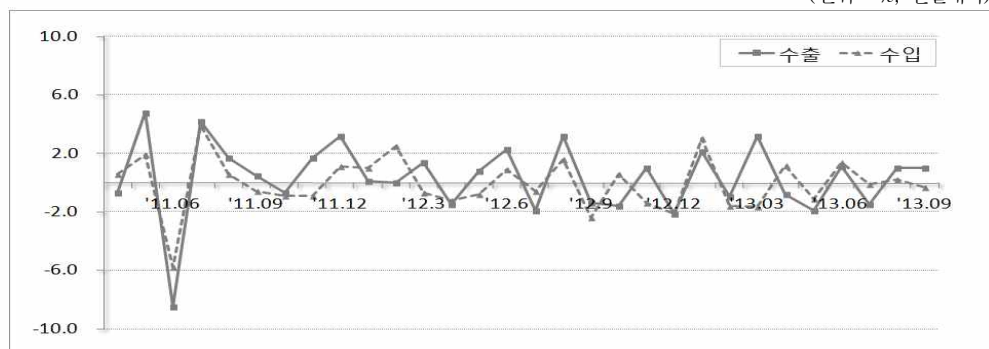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생산 ¹⁾	-2.4	0.7	-1.0	1.0	-0.5	-
소매판매	-1.8	-0.8	0.7	0.5	-0.6	-
물가 ²⁾	생산자	2.8	0.0	0.2	0.0	0.1
	소비자	2.5	0.1	-0.5	0.1	0.5
무역 ³⁾	수출	7.3	1.1	-1.5	1.0	1.0
	수입	1.5	1.4	-0.1	0.2	-0.3
실업률 ⁴⁾	11.4	12.1	12.1	12.2	12.2	12.1
주가지수 ⁵⁾	2,635.9	2,602.60	2,768.2	2,721.4	2,893.2	3,068.0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전기대비,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수출 FOB, 수입 CIF, 4)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 후 5)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12)/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3-51호)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3.11.21]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 전략 제시

- 21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목표·전략·핵심사업 등 보고 -

-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충남도의 전략이 제시됨
 - 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주도형 충청광역경제권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수행 중으로, 지역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과 주력산업 혁신역량 집중 필요성에 따라 추진
 - 이날 보고된 충청권 연계 협력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 상생발전 목표는 ‘지속가능한 충청권의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설정
 - 추진전략은 ▲충청권 현안과 지역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 ▲충청권 선도·전략·신흥 산업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권역 내 부가가치 순환력 제고와 원자재 조달률 향상 및 관련 기업 육성 ▲지역주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거버넌스 구축 등
 - 분야별 핵심사업은 ‘충청권 주력·선도·전략 산업 연계’ 부문에서 ▲IT기반 반도체 성장 거점화 사업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경부-중부 하이웨이(천안-청주-진천) 2차전지 산업벨트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연계 활성화 추진 ▲충청권 철강/금속 소재 산업벨트 구축 및 뿌리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이 제시됨
 - ‘충청권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부문’은 ▲산업용 직류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직류배전 연계형 전력저장시스템(ESS) 실증 사업 추진 ▲직류배전 차단기 신뢰성인증 융합연구단 설치 ▲스마트 직류배전 기기 전력용 반도체 허브 구축 등 4개 사업이, ‘충청권 산업지원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는 ▲광역경제권위원회 기능 및 역할 확대 ▲충청광역 행정본부 설립 및 운영 등이 제출됨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은 충청 지역의 산업과 미래산업 방향성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연구개발-테스트베드-상용화의 연계체제를 조화롭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공동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한편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충청권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
 - 또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건의과제로 활용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와 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사업을 구체화 할 방침임

ISSUE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특별

['13.11.21] 道 '2013년 부정경쟁방지' 우수기관 선정

- 특허청 업무평가 결과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적 등 공로 인정 -

- 충남도는 특허청에서 실시한 2013년 위조상품 합동단속 및 대국민 계도활동 등 부정경쟁방지 업무 기관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둠
 - 이번 평가에서 도는 올 3/4분기까지 위조상품 합동단속에서 15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으며, 10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추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음
 - 도는 또 부정경쟁방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실무자를 초청,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 및 실무중심 사례 강의를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옴
 - 도의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 위조상품 취급점의 광범위·분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도의 의지와 추진력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
 - 도 관계자는 “시장의 특성상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실정으로 우선 위조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함

['13.11.22] “중소기업 발전이 곧 지역 발전”

- 안희정 지사,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받아 간담회 가져 -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간담회를 가졌음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구자옥 대전·충남지역 회장, 류봉걸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음악회를 가진 뒤,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과제보고, 안 지사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 발전이 곧 지역 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안 지사는 이어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 3농혁신, 행정혁신, 내포신도시 등 도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시대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함

['13.11.24]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70% 넘는다”

- 22일 충남북부상위서 민·관 전문가 90여명 참가 합동워크숍 -
- 충남도는 2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도와 시·군, 취업지원서비스 및 인력양성 기관 등 일자리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함
- 이번 워크숍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핵심 과제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인력양성 향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충남도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및 분석 ▲2013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대비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방향 설명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군별 컨설팅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충남도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및 분석에서는 최근 충남도의 취업자 증가율 및 상용근로자 증가율,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지원 실적 증가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주요요인을 살펴보고 더 나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면밀한 분석이 실시됨
- 도내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7.6%가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12.3% 증가,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지원 실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137.2% 증가로 각 부문별 전국 1위를 달성
- 또 권역별 분임토의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취업알선서비스 제고방안, HRD네트워크 구성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져 다양한 발전방안이 도출됨
-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취업지원서비스 발전방안을 도정에 접목하고, 도내 전 시·군을 아우르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통해 충남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함

['13.11.24] 충남 10월 한달 수출 62억불...역대 최고치

-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수출누계 540억불 기록 -
- 충남지역의 10월 한 달 수출실적이 무려 6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탄력에 힘입어 충남 수출이 상승장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도는 올해 10월까지 도내 총 수출액이 지난달 말 기준 540억6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억100만 달러에 비해 6.0%(30억61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4일 밝힘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4637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551억8900만 달러)에 비해 1.9%(85억96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 수출이 전국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음
- 특히 지난 10월 한 달 총 수출액에서는 62억16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월간 기록으로는

최고 수출실적을 보였으며 수입액도 28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가 증가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충남의 올해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했으며, 지난해 동기간 무역 흑자액 232억 달러보다 26억5500만 달러가 늘어난 258억5500만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356억5100만 달러)를 이끌었음
- 품목별로는 반도체(5.4%), 컴퓨터(13.5%), 무선통신기기(76.1%) 등 IT 관련 품목이 미국, 중국 등 선진시장에서 선전
- 반면 도내 서북부 지역의 주력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는 TV용 패널 수요부진으로 중국(13.3% 감소), 슬로바키아(29.1%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의 수출 감소를 보였고, 석유제품은 필리핀(41.3% 감소), 베트남(79.6% 감소) 등 신흥 시장의 경기둔화로 10.8% 감소
- 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반도체 142억 2200만 달러(5.4% 증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91억 1400만 달러(4.4% 감소) ▲전자응용기기 46억 7700만 달러(24.5% 증가) ▲석유제품 44억5000만 달러(10.8% 감소) ▲석유화학중간원료 29억3200만 달러(77.0% 증가) ▲컴퓨터 21억8700만 달러(13.5% 증가) ▲자동차부품 21억7700만 달러(17.1%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252억8700만 달러로 13.3%의 증가율을 보였고 ▲홍콩이 66억8000만 달러(8.4% 감소) ▲미국 42억3000만 달러(21.4% 증가) ▲대만 26억4700만 달러(23.8% 증가) ▲일본 25억 2600만 달러(15.5% 감소), ▲베트남 21억6100만 달러(18.3% 증가)가 순으로 집계
- 특히, 지난 5월 한·터키 FTA 발효로 관세혜택 품목이 큰 합성수지(199.0%), 철강관(280.6%)이 크게 증가하는 등 터키로의 수출이 무려 70.1% 증가
-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9월(3.6%) 반짝 증가세를 기록한 후 10월 들어 23.5%가 감소 하며 엔화약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의 10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IT제품의 수출 증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과 신흥국 시장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은 낙관하기 어렵지만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12월 28일 예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12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3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함
- 이와 함께 도는 1월 10일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증대에 기여한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

['13.11.25] 고도기술 보유 日 3개사 투자유치

- IHI·ISEL·JCU 5000만 달러 투자, 천안·서산에 생산 공장 설립 -
- 핵심기술 국내 이전·전략산업 발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기대 -
- 충남도가 자동차엔진 터보차저 제조업체 등 고도기술 보유한 일본 3개 기업으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음
- 안희정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즈나가 케이야(満永 敬哉) IHI사 부사장, 국내합작투자사인 현대위아IHI터보 우남제 사장, 츠치타니 마사카즈(土谷 正一) ISEL사 부사장, 카스야 요시마사(粕谷 佳允) JCU사 사장, 전병욱 천안부시장, 추한철 서산부시장 등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에 따르면, 터보차저 제조업체인 IHI사는 국내 합작사인 현대위아와 3500만 달러를 투자, 서산 오토밸리에 2만㎡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본격 생산함
- 터보차저 시스템은 버려지는 자동차 배기 에너지를 터빈의 회전력으로 변환시켜 엔진의 출력 및 연비를 향상시키는 장치로, 그동안 국내에 기술이 없어 부품 조립 형태로 완성차에 납품돼 왔음
- 도는 IHI의 이번 투자 결정에 따라 터보차저 시스템 핵심기술이 국내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ISEL은 플렉시블 오엘이디 디스플레이용 필름(곡면 휴대폰 액정 등에 사용) 등을 정밀하게 자르는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임
- 이 회사는 이번에 1000만 달러를 투자, 천안5산단 외국인투자단지에 8105㎡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
- 정밀커팅 기계는 국내 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현재 ISEL이 삼성전자 등에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음
- JCU사는 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5산단 외투단지에 9448㎡ 규모의 전자부품 등 표면처리 약품 생산 공장을 건립, 내년 9월부터 제품을 생산
- 표면처리 약품은 역사가 짧아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원천기술의 국산화가 가능해질 전망
- 도는 이번 3개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로 도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 국내에 확보되지 않은 3개사의 기술을 도입, 국내 완성제품 기업들의 가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봄
- 도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직접고용 200명, 연간 매출액 1조48억원, 수입 대체 6050억원,

생산유발 1조3764억원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이날 협약식에서 카스야 JCU 사장 등 일본 기업 대표들은 “충남은 세계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이 크지 않고, 고속도로와 철도, 무역항 등 물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함
- 안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상황에서도 도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 강소기업의 투자가 큰 힘이 됐기 때문”이라며 “IIH사와 ISEL사, JCU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13.11.26] 도지사·시장군수 총출동 “충남에 투자하세요”

- 26일 서울서 ‘내포시대 원년, 100년을 여는 투자유치설명회’ -
- 도 투자 프로젝트 소개·대기업 구매 설명·투자상담 등 진행 -
- 충남도는 26일 서울 매리어트 호텔에서 ‘내포시대 원년, 100년을 여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
 - 안희정 지사와 이준우 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내포신도시 및 도의 투자 프로젝트 설명, 대기업 구매 설명, 기업 성공사례 발표, 투자 상담 등의 순으로 진행됨
 - 이날 행사는 특히 도정 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 동참으로 상당수 협력업체가 참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음
 - 안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대덕특구 등에 인접해 있어 고급인력이 많고, 교통 등 인프라가 풍부하며, 대중국 물류 거점, 환황해권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 때문에 지난 5년간 100인 이상 153개 기업이 충남을 선택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 200여개가 충남에 터를 잡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함
 - 또 “충남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1위, 국내기업 유치 1위, 1인당 GRDP와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전국 2위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탕정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확장 신청을 9개월 만에 처리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충남도는 기업들이 초기에 쉽게 정착하고, 설립 후에는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진행된 내포신도시 투자 설명에서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통과 인프라 구축 ▲주거·문화·교육 등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 계획 등 내포신도시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첨단 기업들의 관심을 당부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의 투자 프로젝트 설명을 통해 ▲충남 경제의 현 주소와

핵심산업 지원 ▲상생산단 조성 ▲산업단지 현황 및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며 “충남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이와 함께 대기업 구매 설명회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제철이 각 기업의 구매정책 및 향후 투자 방향을 소개하고, 일진전기가 투자 성공사례를 발표함
- 한편 도는 지난 25일 고도기술을 보유한 일본 3개 기업과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 민선5기 들어 모두 24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함
- 올해 국내기업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달 말까지 562개 업체를 유치, 1조5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1만8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 됨

['13.11.26]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살립시다”

- 도, 연말연시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활동 팔 걷어-
 - 충남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해 관내기관, 기업, 단체에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촉진 활동에 나섬
 - 도는 올해 초부터 설과 추석명절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하도록 도내 소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음
 - 또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총 195개 기관·단체·기업체와 39개 시장이 자매결연해 월1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활용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결과 지난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56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금액은 259억원에 달함
 - 도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해 상인대학 등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등 온누리 상품권 구매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도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1인 3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함
 -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이며 도내 50여개 시장과 전국 1240여개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13.11.27] 도내 권역별 인력 양성 방안 모색

- 제4차 고용포럼 개최 ... 전문가 등 60명 참석 발표·토론 진행 -
- 충남도는 27일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고용 서비스 기관들의 협력 강화와 권역별 인력 양성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제4차 충남고용포럼'을 개최
 - 도내 고용 서비스 기관 전문가, 도와 시·군 고용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됨
 - 발표는 강봉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정영현 한국고용정보원 실장이 '충남지역 권역별 인력 양성 방안', '도내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짐
 -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도내 고용 및 인력 양성 동향, 취업 지원 동향 등을 살피고, 지역 단위 기업의 인력 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제안
 - 또 정 실장은 정책협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도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옴
 -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남의 고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함

['13.11.2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공신화 썼다

- 28일 13개국 41개사 해외바이어와 도내 104개 업체 참여 -
- 4개社 1130만 달러 수출계약·3억1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
-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충남도가 실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3억1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1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됨
 - 충남도는 28일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
 -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코트라 충청권지원단(단장 어성일)과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상하이, LA)가 공동으로 발굴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 미주 등 13개 국가 41명의 해외바이어와 도내 104개 기업이 참여함
 - 이번엔 참가한 도내 수출기업은 디스플레이, 광학, 화학, 화장품, 이·미용품, 건축기자재,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우수 기업으로, 신규 해외시장과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음
 - 참가기업 중 서천에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A사는 방글라데시 바이어와 3년간 800만

-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림
- 또 금산의 B사와 보령의 C사는 말레이시아 식품 바이어와 각각 50만 달러와 2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했고, 아산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D사도 우크라이나 바이어와 26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들의 수출계약이 쏟아짐
-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그동안 도가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지원했던 해외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박람회 사업을 통해 발굴된 해외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도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수출지원 전략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
- 안희정 충남지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 충남은 FTA 확산 흐름을 타고 수출기업의 무역영토를 넓혀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품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거래를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함
- 한편, 도와 한국무역협회는 내년에도 한 차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

['13.12.2] 내포신도시 첫 기업유치 성공

- 우수AMS(주), 2016년까지 335억 투자 생산라인 신설 -
- 바스프·제이텍 등은 내포신도시 10km 반경 내 입주 -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첫 기업 유치에 성공. 안희정 지사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종인 우수AMS(주) 대표, 신우성 한국바스프(주) 대표, 장두훈 (주)제이텍 대표, 정규식 미원화학(주) 대표, 유영균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준원 공주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등과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함
- MOU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오는 2016년까지 모두 1435억원을 투자해 공주와 홍성, 예산 지역 산업단지 등에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함
- MOU 체결 기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우수AMS(주)로,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 내 산업용지 3만3000㎡의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335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신설함
- 지난 1983년 설립한 우수AMS(주)는 변속기 부품과 엔진 부품, 전기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음
- 본사는 창원에 있으며, 종업원 350명에 지난해 매출액 1480억원, 우수정기 등 관계사까지 포함한 매출액은 2370억원을 기록한 유망 기업임
- 우수AMS(주)의 이번 투자 결정은 충남의 공장입지 환경과 연관 인프라가 우수한 데다, 주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그룹 주요 계열사가 도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함
- 이 기업은 내포신도시에 공장과 연구동, 사무동,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사업장 신설을

통해 전기자동차 부품 등 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며, 2014년 첫 삽을 뜨고 2016년까지 투자를 완료함

- 도는 우수AMS(주)의 내포신도시 생산라인이 구축되면 12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조기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는 또 국내 유망 기업들이 내포신도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3개 기업과는 조만간 투자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날 우수AMS(주)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국바스프(주)와 (주)제이텍은 내포신도시에서 10km 가량 떨어진 예산군 삽교읍 예산일만산업단지에 새롭게 등지를 틀게 됨
-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한국바스프(주)는 8만2645㎡의 부지에 2015년까지 600억원을 투자하고, 집진기 생산업체인 (주)제이텍은 1만6529㎡의 부지에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함
- 또 계면활성제를 생산하고 있는 미원화학(주)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6만9042㎡의 부지에 2016년까지 4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함
- 도는 이번 4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향후 4년간 1718억원의 생산유발과 1508명의 고용창출, 72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각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9548억원의 생산액과 2395억원의 부가가치, 1054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약속함
-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꼭 필요하며, 우수AMS(주)의 이번 투자 약속은 그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함
- 안 지사는 또 “각 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는 시·군과 협력해 기업들이 충남에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임

['13.12.2] 서해도시가스(주) 온정의 기탁금 1억원 전달

- 2일 안희정 지사에 성금 전달 ... 정기적 봉사활동 등 귀감 -
- 2013년 연말을 앞두고 동절기 추위가 다가오는 가운데 불우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음
- 충남도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주) 김영진 대표이사는 2일 내포신청사를 방문,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억원을 기탁
- 이날 안희정 지사에게 전달된 후원금 1억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

- 이외에도 서해도시가스㈜는 지난달 28일 직원들로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이 서산연탄은행에 연탄 1만여장 지원하고 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 2700여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함
- 이와 함께 직원들이 직접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가스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함
- 또 관계자는 “서해도시가스㈜는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교육발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서해도시가스㈜의 성금 기탁을 계기로 더 많은 도내 기업들이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함
- 한편, 당진시 당진읍에 소재한 서해도시가스㈜는 지난 1996년 당진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 현재 충남도 5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음

['13.12.3] 충남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 ‘호평’

- 4개월 만에 2개 업체 1184만 달러 수출계약...맞춤식 지원 성과 -
- 충남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 참가업체가 해외 수출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는 등 사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3일 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본격 시작된 ‘충남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한 5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사업시작 4개월여 만에 118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
- 이번 사업에 참가한 아산시 소재 A사는 자동차부품을 독일 B사에 오는 2015년부터 5년간 1114만 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아산시 소재 C사는 가정용 쿨웨어제품을 말레이시아 D사 등에 70만 달러 수출하는 성과를 올림
- 이들 업체가 참여한 수출 강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은 도가 참가업체를 모집해 사업비를 지원(50%)하고, 코트라 본사와 해외무역관이 업체별 사업 로드맵에 맞춰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충남도와 코트라는 2014년에도 참가업체를 추가 모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 수출품목 확대,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인증·등록 등의 수출증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마케팅 사업비의 50%를 업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참가업체의 열정과 의지가 매우 높다”면서 “대기업 의존형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충남의 탄탄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함

- 코트라 권오석 기업역량강화실장은 “참가업체별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업체와 함께 뛰면서 직접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13.12.3] 농공단지 '제2의 도약' 발판 놓는다

- '기업·민생 탐방' 안희정 지사,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가져 -
 - 서민경제 현장을 살피고, 각 주체와의 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업·민생현장 탐방'을 진행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3일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음
 - 예산 신암농공단지 (주)비츠로셀 회의실에서 도내 농공단지협의회장과 관계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농공단지 현황 및 문제점, 지원 정책 설명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 인근 기업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
 -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난 30여년간 농공단지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견인하면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으나, 현재는 농어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판매 부진, 자금난 등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면서 안 지사는 “도는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9월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노후기반시설 개선과 인력난 해소, 제도 및 규제개선, 경영·판매·연구개발 지원, 상생사업 추진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안 지사는 이어 “도는 21세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양적·질적 성장의 조화를 위해 생산과 소득, 소비가 선순환 하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임
 - 도는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으로 ▲노후기반시설 개선 123개소 585억원 ▲일자리 종합센터 16개소 운영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한 완화 등 제도 및 규제개선 4건 ▲농공단지 생산품 공공구매 530억원 ▲지식재산 진흥조례 제정 등 지식재산권 지원체제 구축 ▲지역주민 우선 채용 450개업체 5,079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과 상생사업 등을 추진 중
 - 앞으로는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개선 ▲충남 비즈(Biz)콜센터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입주기업 체질 개선 ▲일자리 종합센터와 연계한 구인구직 종합지원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연구개발

- 지원과 농공단지 기업의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공단지협의회와 연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활성화 시책에 반영할 계획
- 도내 농공단지는 지난 6월 말 현재 모두 90개소(조성 중 18곳 포함)로 전국(447개)에서 가장 많으며, 940개 입주 업체가 2만7,94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 생산액은 2조8,000억원이며, 수출액은 4억7,800만 달러로 집계
- 한편 안 지사는 앞선 지난 9월 3일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10월 4일에는 전통시장 상인 등 150여명과 전통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에는 중소·중견기업 CEO 100여명과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13.12.4] 외국인직접투자 민선5기 목표 조기달성

- 올해 11월 기준 FDI 신고금액 5억4000만달러...전년동기비 14% ↑ -
- 충남도는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11월 기준)이 전년동기 4억7500만 달러 대비 14% 증가한 5억4000만 달러로 전년도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로써 민선5기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11월 현재 29개 기업 25억4500만 달러로, 12월 유치계획인 1개 기업을 추가하면 당초 목표치인 500만 달러 이상 우량기업 30개 유치 계획을 연내에 조기 달성하게 됨
- 충남발전연구원은 올 한해 5억4000만 달러의 외자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 6043억원, 지역생산액 1조 7353억원, 고용은 1만21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이 같은 실적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연, 원화가치의 상대적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상과 같은 투자위축 요인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는 분석
- 그동안 도는 외자유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외자유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경제파급효과, 환경성, 반외자정서, 인센티브 분석 등 4대 항목을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자유치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도는 투자유치 MOU 체결 시 고용창출 및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적극 동참토록 해 외자유치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했음
- 이와 함께 도는 외국기업의 현지토착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외투기업 지원센터 설립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외국인전담진료센터 확대지원 ▲비즈니스 호텔 유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외자유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천안권역에 외투기업이 선호하는 임대형 외투지역을

33만6000m²(10만평)를 조성하는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음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민선 5기 들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의 핵심산업과 연계한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일본과 독일의 부품·소재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함

['13.12.4] 내포시대 충남경제 발전전략 모색

- 4일 ‘도청이전 1주년 기념 세미나’...주제발표·토론 등 진행 -
 - 도청이전 1주년을 기념해 내포시대 충남도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정책 세미나’가 4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음
 - 도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박원식 한국은행부총재, 장광수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장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함
 - 이날 행사는 ‘내포시대 충남경제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박원식 부총재의 인사말에 이어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과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도청 이전은 내포신도시가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로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으로 웅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직 도로, 항만, 문화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과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오리 모두 내포시 건설의 선구자로서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함
 -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이성우 실장은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중국 물류 거점화 전략’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확보 ▲배후 산업여건과 연결할 수 있는 카페리항로 개설 ▲대중국 복합물류체계 구축 ▲대중국 자동차부속품 클러스터 구축 ▲대중국 물류비즈니스모델 개발 ▲중국기업 투자유치센터 설립 등을 제시
 - 김정연 연구위원은 ‘충남권 중심도시로서의 내포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내포신도시 자체의 성장동력 및 자족성의 조기 확보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홍성·예산군의 상생적 지역발전 도모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산, 당진, 보령, 태안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권으로의 발전방안 등을 제시
 - 한편, 이번에 개최한 도청이전 1주년 기념 경제정책 세미나는 충남도와 한국은행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됨

['13.12.10] '충남 수출' 무역 트리플크라운¹⁾ 이끈다

- 10일 무역의날 기념 수출유공자 시상식...대통령표창 등 42명 영예 -

- 충남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 충청남도 수출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함
 - 안희정 지사와 김기영 도의회 부의장,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수출 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정부 포상 전수와 '충청남도 수출탑' 및 '수출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됨
 - 이날 시상식에서는 ▲3억불 수출탑 천안 소재 (주)디아이다 ▲1억불 수출탑 예산 소재 (주)녹수 ▲3000만불 수출탑 천안 (주)회명산업 등 26개 업체가 정부 수출탑을 전수받음
 - 정부 개인포상은 ▲(주)에스에이씨 한형기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주)녹수 최상열 부장 등 3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음
 - 이외에도 ▲케이유피피(주) 이인주 차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에스티에이프로덕트(주) 조원영 대표이사 등 5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삼화엠테크(주) 김윤택 부사장이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
 - 특히 올해 정부 수출탑 수상업체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16개 업체가 줄어든 1526개 기업으로, 이 가운데 충남도 소재 기업은 총 75개사가 이름을 올림
 - 충청남도 수출탑은 빌드캠(주), (주)세라테크, (주)우성금속 3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충청남도 수출 유공 표창은 케이엠피(주) 이형집 대표이사, 수출 지원 유관기관 유공자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박초롱 대리가 각각 수상함
 - 충남도 수출탑을 수상한 빌드캠(주)는 공주시에 위치한 바닥재 생산업체로 수출실적 전년대비 541%의 신장률을 기록함
 - (주)세라테크는 천안시에 위치한 마사지기 생산업체로 국제특허 및 인증을 바탕으로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174% 늘었고, (주)우성금속은 예산 소재 펌프, 케이싱 생산업체로 국내외 기술 및 혁신인증을 통해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127% 늘었음
 - 충남도 수출유공 표창을 수상한 이형집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금속인쇄업체인 케이엠피(주)를 이끌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안희정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수출 540억불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노고를 치하함
 - 안 지사는 “앞으로도 21세기 무역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 향상으로 활발한 국가간 경제활동이 상호교류와 세계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 협력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함

1) 무역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 :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 (전세계 4개국만 달성 : 독일, 네덜란드, 중국, 한국)

- 한편,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6% 증가한 5620억불로 세계 수출 순위 7위 수성과 함께 무역 1조불 달성, 사상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를 뜻하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이 기대됨
- 이 가운데 충남은 지난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0% 늘어난 540억 6159만 9000불을, 수입은 1.5% 감소한 282억 722만 2000불을 기록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흑자규모 기준 2위, 전체 수출규모 기준 3위를 달리고 있음

['13.12.10] “기술혁신으로 ‘벤처 2세대’ 대비해야”

- ‘기업·민생현장 탐방’ 안희정 지사, 벤처산업 정책토론회 가져 -
- 충남도 내 벤처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처산업 정책토론회’가 10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림
 -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기업·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안희정 지사와 도내 벤처협회 회원, 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
 - 토론회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발표는 백운만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이 ‘창조경제 시대와 벤처창업 정책’을, 김흥기 한남대 교수가 ‘충남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졌음
 -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이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올해 교역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되며, 무역수지는 258억 달러로 전국 357억 달러의 72%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안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 2만여 벤처기업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산업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을 통해 ‘2세대 벤처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안 지사는 또 “충남은 과학벨트와 대덕특구가 인접해 있고, 창업 보육 활성화 사업 및 벤처프라자·벤처펀드자금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벤처를 성장시킬 환경과 토양을 갖추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공과 성장은 충남 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은 만큼, 도내 벤처기업 비중을 전국 3.4%에서 10% 수준으로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창업보육센터, 투자조합(펀드) 조성 운영, 충남지식재산센터 지원 사업 등 ‘창업단계’ 3개 사업과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충남테크비즈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 디자인 개발 등 ‘성장단계’ 4개 사업,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고산업,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 ‘연구개발 지원’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안 지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아산에서 과수원방제기, 가축방역 특장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 한성티앤아이(대표 황인성)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근로자 대표와 대화를 나눴음

['13.12.12] 道, 2013 노사민정 협력 우수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전국평가 결과...노사관계 안정 및 신뢰구축 결실 -
- 충남도가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3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이로써 도는 지난 2010년, 2011년에 이어 노사분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둠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도는 ▲고용·노사관계 거버넌스 정착지원 ▲노동 분야 사회책임 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및 인적개발 지원 ▲노사갈등 예방 및 사전조정 등을 통해 지역 노사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음
 - 특히 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사회책임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충남도 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노사 의견을 도정에 반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이와 함께 도는 유성기업 등 해직 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심리치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안정 및 갈등예방 정책을 추진해 지역 노동정책 발전에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앞으로도 충남 노사민정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한편, ‘201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은 12월 20일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됨

['13.12.12] “기업 맞춤형 인력 키워 미스매치 해소”

- 12일 경제진흥원서 전략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립회의 -
- 충남도는 12일 경제진흥원에서 전략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립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도내 중소기업 인력부조화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전략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도와 충남기업연합회(회장 최호상)이

공동으로 도와 산업계 등 노·사·민·정 대표와 기업체 및 업종별 단체,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향후 충남지역 전략산업분야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중소기업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지역공동훈련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수립 및 훈련과정 개발, 지역 교육 훈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철저하게 수요자 요구에 맞춘 산업계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임
- 도와 충남기업인연합회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의 ‘201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향후 6년간 국비 144억원을 지원받게 됨
- 도는 이번 위원회 출범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훈련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한 인력배출로 인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산업인력의 미스매치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구직자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13.12.12] 산업단지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첫발

- 11일 심의위 송선일반산업단·예산미니복합타운 조건부 가결 -
-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송선일반산업단지계획(안), 예산미니복합타운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함
 - 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는 금속 가공제조업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조건으로 송선 일반산업단지계획을 가결처리하고,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단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을 조건으로 가결처리함
 -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말까지 추진되는 송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이 예상됨
 - 공주시 송선동 산 32-49번지 일원에 31만4379㎡ 규모로 추진되는 송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5년 완료될 경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인원 1579여명, 연간 4940억원의 직접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또 예산군 고덕면 일원의 4개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만8027㎡ 규모로 추진되는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고용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공주 송선 일반산업단지, 예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13.12.16] 충남, 기업-농촌간 아름다운 상생 결실

- 25개 기업 추가 협약 총 109개사...구매효과 200억원 돌파! -

- 충남도가 3농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운동의 참여 기업이 총 109개 확대돼 구매효과가 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업과 농촌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산·계룡·당진시에 위치한 25개 기업과 구내식당 위탁업체 1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식을 가짐
-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과 구내식당 위탁업체는 쌀과 육류 등을 도내 생산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협약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됨
- 특히 이번 협약에는 삼성전자(주), 삼성디스플레이(주), 현대자동차(주) 등 대기업이 동참해 지역 농·축산물 구매효과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전망
- 도는 이번에 쌀 1409t, 육류 137t, 양념류 186t 등 총 2487t, 92억원의 지역 농·축산물 구매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은 지금까지 109개 기업이 참여해 쌀 4863t, 육류 290t, 양념류 282t 등 총 6514t, 209억원의 구매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축산물 선순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또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유공자로 신경석(삼성디스플레이), 정철규(현대제철), 강선혜(삼성웰스토리), 이시형(아워홈), 한상은(천안시), 박문수(예산군)씨 등 6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
- 안희정 도지사는 “지역 농·축산물 소진촉진 협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3농혁신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업과 위탁업체의 협조로 협약 이행사항이 실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한편, 도는 내년부터는 올해 포함되지 않은 수산물을 포함시켜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주요 민간 기관·단체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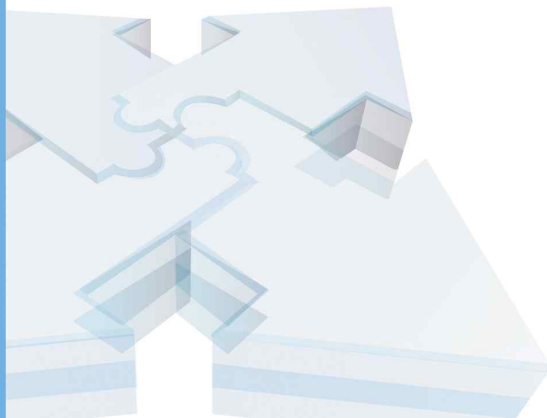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중국 내수기업의 프리미엄 전략
 -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 디지털 체험
 - 스마트 뉴딜(New Deal)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 중국의 對아세안 경제무역 협력 강화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한중일 관계 개선, 산업협력부터가 시작이다!
 - 한국경제, 일본 닮고 있다!
 - 원화 강세 당분간 지속 가능성 높다.
 - 고령화시대 급진전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생애재무설계
 - 원화 절상이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2014년 구내외 경제전망, 성장률 3% 중반의 완만한 회복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진단
 - 한국 제조기업 수익성 장기 하향 추세
 -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 디플레이 경계심 높여야
 - 중국 3중전회, 집진적 개혁 통한 안정적 성장' 노선 채택
 - 지금 중국은 '신틱구' 전성시대, 외자기업 혜택 줄지만 차별도 줄어든다.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
 - 가계대출과 시스템적 리스크 : 신용정보의 유용성
 - 중국의 국제원자재시장에서의 위상 및 파급 영향
 -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 중국의 금리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51,605	12,724,595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384,053	12,795,464
1인당 GNI ¹⁾	만원	2,010	2,113	2,175	2,378	2,488	2,559
경제성장률 ²⁾	%	5.1	2.3	0.3	6.3	3.7	2.0
산업구조	—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2.6
광공업		27.5	28.1	28.0	30.5	31.5	31.3
전기·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1.9	2.1
건설업		7.4	7.0	6.9	6.3	5.9	5.8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0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3	80.2	78.1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6.2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16.7
건설업		7.9	7.7	7.3	7.4	7.2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69.9
실업률	%	3.2	3.2	3.6	3.7	3.4	3.2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068	43,139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1,660	38,338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5,850	2,676
본원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891	4,886
이전소득수지		△3,527	△674	△712	△3,079	△2,633	△2,761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5,479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5,196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6	30.8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3.9	23.4
정부비중		10.6	9.3	6.8	7.4	7.7	7.4
총자본형성 ³⁾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282,324	277,336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4	69.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3.1	53.5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3	15.8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7	0.7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2.2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3) 자본재형태별 (원계열, 실질)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경제지표 (2013.12.1기준)

금리

(%p)

구분	'11말	'12말	'13.10말	11.28	11.29	12.2	전일비	'12말비
콜금리(1일)	3.27	2.75	2.51	2.49	2.49	2.50	0.01	△0.25
CD(91일)	3.55	2.89	2.65	2.65	2.65	2.65	0.00	△0.24
국고채(3년)	3.34	2.82	2.82	2.99	3.01	3.04	0.03	0.22
국고채(5년)	3.46	2.97	3.05	3.32	3.35	3.39	0.04	0.42
회사채(3년, AA-)	4.21	3.29	3.24	3.41	3.43	3.45	0.02	0.16
외국인채(순매수(상장액))	412,343	379,835	9,204	1,520	465	6,203	5,738	-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10말('13.10.1~10.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분	'11말	'12말	'13.10말	11.28	11.29	12.2	전일비	'12말비(%)
KOSPI지수	1,825.74	1,997.05	2,030.09	2,045.77	2,044.87	2,030.78	△0.69%	1.69%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6,321	32,991	45,477	41,187	34,295	32,179	△2,116	-
KOSDAQ지수	500.18	496.32	532.44	515.52	517.06	512.69	△0.85%	3.30%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95,732	176,293	52,904	1,804	966	361	△605	-

※ 기간 중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10말('13.10.1~10.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분	'11말	'12말	'13.10말	11.28	11.29	12.2	전일비(%)	'12말비(%)
W/US	1,151.80	1,070.60	1,060.70	1,061.50	1,058.20	1,057.20	△0.09	△1.25
선물환(NDF, 1월물)	1,154.70	1,072.80	1,063.30	1,063.90	1,060.40	1,059.80	△0.06	△1.21
W/CNY	182.29	171.80	174.06	174.21	173.65	173.49	△0.09	1.53
W/EUR	1,488.93	1,417.47	1,452.95	1,441.94	1,440.74	1,438.11	△0.18	1.46
W/¥100	1,481.22	1,238.26	1,078.71	1,039.26	1,035.02	1,032.62	△0.23	△16.61
¥/US	77.76	86.46	98.33	102.14	102.24	102.38	0.14	18.41
US/EUR	1.2927	1.3240	1.3698	1.3584	1.3615	1.3603	△0.09	2.74
CNY/US	6.3248	6.2304	6.0940	6.0925	6.0926	6.0928	0.00	△2.21

※ '12년 평균 환율 : (W/US) 1,126.8원 (W/¥100) 1,414.0원 ※ '13년 평균 환율('13.1.1~현재) : (W/US) 1,088.4 (W/¥100) 1,133.2원

국제금리·주가·가산금리

구분	'11말	'12말	'13.10말	11.28	11.29	12.2	전일비	'12말비
LIBOR(Dollar, 3월, %)	0.58	0.31	0.24	0.24	0.24	-	0.00	△0.07
T/NOTE(10년, %)	1.88	1.76	2.57	2.74	2.77	-	0.03	1.01
DOW	12,218	13,104	15,546	-	16,086	-	△0.07%	22.76%
NIKKEI	8,455	10,395	14,328	15,727	15,662	15,655	△0.04%	50.60%
SANGHAI COMP	2,199	2,269	2,142	2,219	2,221	2,207	△0.59%	△2.72%
외평채가산금리(bp, 14년물)	165	63	40	29	28	-	△1	△35
CDS(5년, bp)	161	67	60	57	56	59	3	△8
CRS(1년, %)	2.05	2.22	2.19	2.09	2.07	2.07	0.00	△0.15

유가·곡물·원자재

구분	'11말	'12말	'13.10말	11.27	11.28	11.29	전일비(%)	'12말비(%)
DUBAI (\$/배럴)	104.89	107.81	106.50	108.67	108.78	108.68	△0.09	0.81
WTI 선물 (\$/배럴)	98.83	91.82	96.38	92.30	-	92.72	0.46	0.98
Brent 선물 (\$/배럴)	107.38	111.11	108.84	111.31	110.86	109.69	△1.06	△1.28
원당 (센트/파운드)	23.3	19.51	18.32	17.22	-	17.15	△0.41	△12.10
밀 (센트/부셸)	653	778	668	651	-	655	0.58	△15.81
콩 (센트/부셸)	1,208	1,410	1,280	1,320	-	1,337	1.25	△5.18
옥수수 (센트/부셸)	647	698	428	417	-	415	△0.48	△40.53
동 (\$/톤)	7,570	7,930	7,234	7,052	6,988	7,027	0.56	△11.39
알루미늄 (\$/톤)	1,992	2,072	1,833	1,721	1,701	1,711	0.59	△17.40

※ '12년 평균 유가 : (Dubai) 109.03\$, (WTI선물) 94.18\$. ※ '13년 평균 유가('13.1.1~현재) : (Dubai) 105.05(WTI 선물) 98.00\$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848,817	890,918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6	5.65	6.12	6.51	6.84	6.99
GRDP 성장률 ²⁾	%	7.1	6.2	5.4	12.0	5.0	3.4
1인당 GRDP	백만원	27.97	28.82	31.95	36.79	40.34	—
산업구조 ³⁾	—						
농림어업	%	6.7	6.3	5.7	5.1	4.6	4.9
광공업		45.6	46.6	50.7	54.5	57.4	57.3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3.7	3.6
건설업		8.7	9.3	8.1	7.5	7.0	7.1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5.3	32.0	29.2	27.3	27.1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1,717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1,080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1,056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15.1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20.2
건설업		6.6	5.7	5.8	5.6	6.4	6.6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58.1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25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637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62.9
실업률	%	2.2	2.4	3.0	2.9	2.3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61.5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28,523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62,031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33,509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2.4

주 : 1) 당해년가격 2) 연쇄지수(2005=100)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4) —는 통계수치발표 이전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천안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공주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보령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아산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213,087
서산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논산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계룡시 ¹⁾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4,482
당진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72,559
금산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연기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부여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서천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청양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홍성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예산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17,518
태안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충청남도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63,5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10=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10=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10. 10	101.6	0.0	5.9	7.2	100.0	-0.4
11	101.7	0.1	5.0	6.4	99.7	-0.4
12	102.5	0.8	5.7	6.4	100.1	0.4
2011. 01	104.2	1.6	7.9	7.3	101.2	1.2
02	104.9	0.6	8.0	7.1	101.4	0.2
03	105.1	0.2	7.3	6.7	101.2	-0.2
04	104.9	-0.2	5.9	5.9	100.5	-0.6
05	105.4	0.5	5.8	6.0	100.6	0.0
06	106.2	0.8	6.3	6.2	100.9	0.3
07	106.6	0.3	5.8	5.9	100.8	-0.1
08	107.0	0.4	5.7	5.8	100.8	0.0
09	107.4	0.3	5.5	5.5	100.7	-0.1
10	108.1	0.7	5.9	5.8	101.0	0.3
11	108.7	0.5	6.0	5.8	101.1	0.1
12	109.2	0.5	5.8	5.7	101.2	0.1
2012. 01	109.5	0.3	5.3	5.5	101.1	-0.1
02	110.0	0.4	5.3	5.4	101.1	0.0
03	109.9	-0.1	4.4	4.9	100.7	-0.4
04	110.1	0.2	4.1	4.6	100.5	-0.2
05	110.6	0.4	4.1	4.4	100.5	0.0
06	110.6	0.0	3.4	3.9	100.2	-0.3
07	110.8	0.2	3.2	3.7	100.0	-0.2
08	110.9	0.1	2.7	3.3	99.7	-0.3
09	111.5	0.6	3.2	3.5	99.9	0.2
10	111.6	0.1	2.8	3.2	99.7	-0.3
11	112.0	0.3	2.9	3.1	99.6	-0.0
12	112.2	0.1	2.7	2.9	99.4	-0.2
2013. 01	111.7	-0.4	1.6	2.2	99.0	-0.4
02	111.0	-0.6	0.2	1.3	98.3	-0.7
03	111.0	0.0	0.0	1.0	98.0	-0.3
04	112.0	0.8	1.4	1.6	98.7	0.5
05	112.4	0.3	1.8	1.7	99.0	0.1
06	112.8	0.4	2.2	1.8	99.2	0.1
07	113.1	0.2	2.3	1.9	99.1	0.0
08	113.7	0.5	3.1	2.4	99.4	0.3
09	114.1	0.4	3.4	2.7	99.5	0.1
10	115.2	0.9	4.8	3.5	100.1	0.6

자료 : 2013년 10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13.12.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체감	전망	체감	전망	체감	전망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2	59.9	83.9	60.8	87.9	58.2	78.7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4/4	68.0	89.9	67.9	94.8	66.7	86.8
2013 1/4	51.3	92.6	48.4	95.2	54.6	91.2
2/4	60.7	91.6	61.8	96.5	63.4	90.2
3/4	62.3	85.5	61.7	89.5	91.1	80.2
2012.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82.7	96.4	90.3	101.7	77.0	91.3
12	44.5	71.0	40.6	75.1	51.9	74.4
2013. 01	41.9	72.0	38.9	66.6	49.8	76.4
02	52.9	104.1	50.9	110.4	59.9	96.4
03	59.1	101.7	55.4	108.6	54.1	100.7
04	58.8	100.8	61.2	105.3	62.4	97.6
05	69.6	96.6	66.9	102.7	68.3	92.4
06	53.6	77.5	57.2	81.4	59.6	80.7
07	49.4	78.6	49.7	72.8	58.3	75.4
08	53.9	72.5	53.2	79.4	54.2	68.7
09	84.6	105.5	82.2	116.3	74.6	96.5
10	55.4	88.7	58.3	92.5	57.6	96.2
11	79.9	105.9	87.9	111.2	76.3	97.0
12	-	78.6	-	74.3	-	76.3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2	1,540,187	6.2	—	—	—	—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7,720	5.8	6.5	269,446	9.1	16.7
4/4	410,503	8.4	5.9	—	—	—
2013 1/4	385,588	2.0	-6.1	—	—	—
2/4	380,702	4.6	-1.3	—	—	—
3/4	399,108	2.9	4.8	—	—	—
201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5,939	6.5	10.0	93,244	12.6	5.7
10	127,452	3.3	-6.2	—	—	—
11	133,475	16.2	4.7	—	—	—
12	149,576	7.1	12.1	—	—	—
2013. 01	121,870	-10.9	-18.5	—	—	—
02	128,268	10.0	5.2	—	—	—
03	135,450	8.7	5.6	—	—	—
04	120,308	0.6	-11.2	—	—	—
05	130,684	2.6	8.6	—	—	—
06	129,810	10.9	-0.7	—	—	—
07	123,643	-3.5	-4.8	—	—	—
08	122,872	-0.6	-0.6	—	—	—
09	152,593	12.3	24.2	—	—	—
10	137,074	7.5	-10.2	—	—	—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0.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12	855,751	-12,937	429	615,770	46,751	190,331	2,899
2013. 01	859,321	-14,698	3,570	618,881	46,739	190,790	2,911
02	861,777	-15,277	2,456	620,903	46,796	191,142	2,936
03	864,711	-14,839	2,934	623,471	46,798	191,486	2,956
04	868,178	-13,738	3,467	626,387	46,884	191,914	2,993
05	870,741	-13,607	2,563	628,480	46,930	192,325	3,006
06	873,672	-13,103	2,931	630,864	46,956	192,837	3,015
07	876,401	27,192	2,729	633,075	47,103	193,183	3,040
08	877,022	28,719	621	634,179	46,986	192,807	3,050
09	880,749	30,437	3,727	637,043	47,046	193,591	3,069
10	882,694	30,066	1,945	639,168	46,904	193,541	3,081
11	885,131	29,809	2,437	641,222	46,843	193,959	3,107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2	106.6	2.4	106.7	2.0	113.2	6.7	106.6	2.5	105.9	1.6	106.8	2.3
2012/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4/4	107.0	2.1	106.8	1.5	113.4	12.5	107.0	2.2	106.2	1.2	107.0	1.6
2013/4	107.5	1.5	107.2	0.8	117.7	6.3	107.5	1.5	106.7	1.0	107.7	1.3
2/4	107.2	0.6	106.3	-0.7	110.1	-3.0	107.3	0.5	106.6	0.6	107.5	0.7
3/4	107.6	0.7	106.6	-0.2	108.8	-5.6	107.6	0.7	107.0	1.0	108.0	1.0
2011.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01	105.5	3.2	105.7	3.0	105.9	-3.2	105.4	3.3	105.2	2.9	105.9	3.6
02	105.9	2.6	106.1	2.1	110.1	-0.7	105.8	2.7	105.6	2.3	106.3	2.8
03	106.3	2.7	106.7	2.4	114.8	3.8	106.3	2.8	105.8	1.9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8	2.1	106.7	2.8
05	106.8	3.0	107.1	3.1	116.5	16.2	106.8	3.1	106.3	2.3	106.9	2.8
06	106.7	2.7	106.9	2.6	109.9	10.9	106.7	2.8	105.8	1.7	106.8	2.3
07	106.3	1.8	106.3	1.6	109.0	3.0	106.4	2.0	105.6	1.0	106.5	1.6
08	106.6	1.3	106.6	0.7	113.3	-2.9	106.7	1.5	105.7	0.6	106.7	1.3
09	107.4	2.3	107.8	2.0	123.7	10.1	107.5	2.5	106.6	1.5	107.5	2.1
10	107.2	2.4	107.3	2.0	119.0	15.0	107.3	2.5	106.5	1.7	107.3	1.9
11	106.8	2.0	106.6	1.5	109.9	10.0	106.8	2.1	106.1	1.2	106.9	1.6
12	107.0	1.9	106.8	1.3	112.9	14.1	107.1	2.2	106.2	1.1	107.1	1.5
2013.01	107.6	2.0	107.5	1.7	118.7	12.0	107.7	2.1	106.8	1.5	107.7	1.7
02	107.8	1.8	107.8	1.6	120.1	9.1	107.8	1.9	107.1	1.4	108.1	1.6
03	107.8	1.4	107.7	0.9	117.8	2.6	107.9	1.5	107.1	1.2	108.0	1.3
04	107.7	1.1	107.4	0.5	116.1	2.3	107.7	1.2	106.9	1.0	107.9	1.1
05	107.7	0.8	107.0	-0.1	111.3	-4.5	107.7	0.8	106.9	0.6	108.1	1.1
06	107.6	0.9	106.8	-0.1	104.7	-4.8	107.6	0.8	106.9	1.0	107.9	1.0
07	107.7	1.3	106.8	0.6	105.3	-3.4	107.7	1.2	107.1	1.5	108.0	1.5
08	108.1	1.4	107.7	1.1	112.7	-0.6	108.1	1.3	107.6	1.8	108.6	1.8
09	108.4	0.9	108.0	0.2	110.4	-10.7	108.4	0.9	107.7	1.0	108.7	1.1
10	107.9	0.7	107.2	-0.1	101.2	-14.9	107.9	0.6	107.2	0.7	108.4	1.1
11	107.9	1.0	107.0	0.4	96.1	-12.5	107.9	1.0	107.2	1.0	108.3	1.3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2	62,031	3.5	-	33,509	-0.4	-	28,522
2012. 1/4	14,526	5.1	-8.3	8,686	13.9	2.2	5,840
2/4	14,811	-0.2	2.0	8,851	2.9	1.9	5,960
3/4	15,746	1.9	6.3	7,869	-11.8	-11.1	7,877
4/4	16,949	7.0	7.6	8,103	-4.6	3.0	8,846
2013. 1/4	15,904	9.5	-6.1	8,854	1.9	9.4	7,050
2/4	15,324	3.5	-3.6	8,244	-6.9	-6.9	7,080
3/4	16,622	5.6	8.5	8,214	4.4	-0.3	8,408
2012. 01	4,563	-3.6	-14.4	2,782	8.9	-4.8	1,781
02	4,828	14.4	5.8	3,100	38.8	11.4	1,728
03	5,135	5.4	6.4	2,804	-1.1	-9.5	2,331
04	4,741	-2.6	-7.7	2,972	10.6	6.0	1,769
05	5,061	0.8	6.7	3,116	12.1	4.8	1,945
06	5,008	1.0	-1.0	2,763	-11.8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2	-13.2	2,736
08	5,048	2.5	-1.7	2,477	-13.6	3.3	2,571
09	5,564	2.4	10.2	2,994	-7.2	20.9	2,570
10	5,918	7.4	6.4	2,395	-15.5	-20.0	3,523
11	5,743	15.0	-3.0	2,874	4.9	20.0	2,869
12	5,287	-0.8	-7.9	2,833	-3.0	-1.4	2,454
2013. 01	5,317	16.5	0.6	2,874	3.3	1.4	2,443
02	5,101	5.7	-4.1	2,845	-8.2	-1.0	2,256
03	5,487	6.8	7.6	3,140	12.0	10.4	2,347
04	4,960	4.6	-9.6	2,861	-3.7	-8.9	2,099
05	5,297	4.7	6.8	2,452	-21.3	-14.3	2,845
06	5,067	1.2	-4.3	2,929	6.0	19.5	2,138
07	5,318	3.6	5.0	2,819	17.6	-3.8	2,499
08	5,589	10.7	5.1	2,646	6.8	-6.1	2,943
09	5,715	2.7	2.3	2,747	-8.2	3.8	2,968
10	6,218	5.1	8.8	2,896	20.8	5.4	3,322
11	5,571	-3.0	-10.4	2,830	-1.5	-2.3	2,741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 차	남자	여자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2	1,080	5.4	641	439	62.9	0.5	75.0	50.9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4/4	1,100	6.7	652	448	62.8	0.6	74.6	51.0
2013. 1/4	1,070	8.0	648	422	60.2	1.2	72.9	47.5
2/4	1,208	8.9	719	489	66.9	1.9	79.4	54.4
3/4	1,218	8.8	726	493	66.7	2.0	79.1	54.2
2012.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12	1,054	7.0	636	418	59.9	0.6	72.4	47.5
2013. 01	1,030	7.4	624	405	58.2	0.8	70.7	45.8
02	1,047	7.4	630	417	58.9	0.9	70.9	46.9
03	1,135	9.1	690	446	63.5	1.8	77.1	49.9
04	1,186	8.2	706	480	66.1	1.5	78.5	53.6
05	1,215	9.2	726	490	67.3	2.0	80.2	54.4
06	1,223	9.2	725	498	67.4	2.1	79.6	55.1
07	1,228	8.7	735	493	67.4	1.9	80.3	54.4
08	1,210	8.9	722	489	66.3	2.1	78.7	53.7
09	1,216	8.7	722	489	66.5	2.1	78.4	54.4
10	1,208	7.1	720	496	65.9	1.2	78.6	53.1
11	1,204	7.8	726	478	65.6	1.8	78.8	52.3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잔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2	1,056	5.5	11	151	219	264	125	96	61	128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4/4	1,079	7.0	10	160	221	268	129	99	61	132
2013. 1/4	1,035	7.7	10	158	223	264	129	96	56	100
2/4	1,174	8.3	12	174	236	277	137	106	70	163
3/4	1,186	8.1	13	168	240	281	136	112	73	163
2012.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12	1,031	6.9	11	161	221	264	126	95	57	97
2013. 01	1,001	7.6	12	158	216	261	125	94	53	82
02	1,003	6.9	9	150	222	262	127	94	53	87
03	1,101	8.5	11	165	230	268	136	101	60	130
04	1,157	8.2	11	172	234	276	137	104	69	154
05	1,180	7.9	13	175	235	276	137	107	70	167
06	1,186	8.8	12	175	239	279	135	107	71	168
07	1,194	8.1	16	175	242	280	134	109	73	165
08	1,180	8.4	14	165	239	281	135	113	72	162
09	1,184	7.7	10	163	240	282	139	114	73	164
10	1,177	6.0	9	161	237	284	137	111	72	166
11	1,176	7.1	10	170	238	281	138	109	71	158

자료 :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 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안·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2010	974	1.3	164	185	55	177	296	99
2011	1,001	2.8	163	204	64	177	297	97
2012	1,056	5.5	159	213	69	199	322	93
2012. 1/4	961	2.8	99	208	65	191	300	98
2/4	1,084	4.3	183	206	70	197	330	98
3/4	1,097	7.5	190	214	69	205	327	91
4/4	1,079	7.0	163	223	73	203	329	88
2013. 1/4	1,035	7.7	113	238	71	197	328	89
2/4	1,174	8.3	193	252	83	199	354	94
3/4	1,86	8.1	198	248	78	202	362	98
2012. 01	930	3.5	80	211	67	190	287	97
02	938	1.5	82	208	63	191	296	98
03	1,015	3.4	136	205	67	191	319	98
04	1,069	5.2	176	203	70	192	332	96
05	1,094	4.6	188	209	70	199	330	99
06	1,090	3.1	186	205	71	202	329	98
07	1,104	7.5	188	212	67	213	331	94
08	1,088	6.6	188	212	70	209	319	91
09	1,099	8.2	194	219	72	195	332	88
10	1,110	6.9	189	217	75	207	331	90
11	1,097	7.3	185	225	70	204	327	87
12	1,031	6.9	116	228	73	199	330	86
2013. 01	1,001	7.6	94	230	68	205	317	87
02	1,003	6.9	95	233	67	195	324	89
03	1,101	8.5	151	250	77	191	342	90
04	1,157	8.2	182	256	83	191	350	96
05	1,180	7.9	197	253	82	200	354	94
06	1,186	8.8	200	247	83	205	359	93
07	1,194	8.1	198	247	81	210	360	99
08	1,180	8.4	196	250	75	197	365	96
09	1,184	7.7	199	246	77	201	362	100
10	1,177	6.0	195	247	74	197	364	100
11	1,176	7.1	179	252	74	203	366	101

자료 :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2	2.3	0.0	2.2	2.4	25	4.2	14	10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4/4	1.9	-0.2	1.8	2.0	20	-6.8	12	9
2013. 1/4	3.3	0.3	3.2	3.4	35	17.6	21	14
2/4	2.8	0.5	3.1	2.4	34	33.6	22	12
3/4	2.6	0.6	3.0	2.2	32	41.6	21	11
2012.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12	2.2	0.1	2.2	2.2	23	11.7	14	9
2013. 01	2.8	-0.1	2.6	3.2	29	1.8	16	13
02	4.2	0.4	3.8	4.8	44	19.6	24	20
03	3.0	0.5	3.4	2.3	34	31.8	23	10
04	2.5	0.0	2.5	2.4	29	7.7	18	12
05	2.9	1.1	3.2	2.5	36	79.3	24	12
06	3.0	0.4	3.5	2.2	37	26.3	25	11
07	2.8	0.6	3.3	2.0	34	36.1	24	10
08	2.5	0.4	2.7	2.3	31	30.5	20	11
09	2.6	0.9	2.8	2.2	31	63.0	21	11
10	2.6	1.0	2.8	2.3	31	71.6	20	11
11	2.4	0.6	2.3	2.4	29	43.2	17	12

자료 :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0.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0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0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0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0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9,646	293,034	462,680	249,763	156,316	406,079
11	173,265	293,094	467,169	248,952	155,717	404,669
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3. 01	182,827	299,436	482,263	247,947	156,711	404,658
02	186,423	299,016	485,439	249,281	156,559	405,840
03	186,938	300,107	487,045	250,243	156,586	406,829
04	190,279	300,406	490,685	251,679	156,791	408,470
05	192,378	300,785	493,163	253,511	156,810	410,321
06	190,473	302,674	493,147	256,242	157,639	413,881
07	192,959	302,487	495,446	256,198	158,514	414,712
08	196,348	302,543	498,891	257,433	159,174	416,607
09	195,204	304,735	499,939	257,916	159,768	417,684
10	196,636	308,929	505,565	261,607	159,850	421,457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2	0.38	0.45	0.08	0.05	0.44	0.01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4/4	0.73	0.18	0.10	0.01	0.46	0.00
2013. 1/4	0.57	1.26	0.36	0.00	0.35	0.01
2/4	0.09	0.08	0.04	0.00	0.48	0.00
3/4	0.38	0.29	0.05	0.00	0.02	0.01
2011.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0.10	0.01	0.31	0.00
11	0.75	1.83	0.00	0.01	0.22	0.00
12	1.18	1.39	0.19	0.00	0.86	0.00
2013. 01	0.97	2.18	1.09	0.00	1.06	0.02
02	0.11	0.20	0.00	0.00	0.00	0.00
03	0.63	1.41	0.00	0.00	0.50	0.00
04	0.11	0.07	0.11	0.00	1.12	0.00
05	0.12	0.16	0.00	0.00	0.30	0.00
06	0.04	0.01	0.00	0.00	0.02	0.00
07	0.73	0.53	0.00	0.00	0.07	0.03
08	0.23	0.16	0.08	0.01	0.00	0.00
09	0.17	0.19	0.08	0.00	0.00	0.00
10	0.07	0.06	0.00	0.00	0.00	0.00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9,020	-8.2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7,471	-17.2
2012	9,794,659	-1.9	7,979,081	-10.3	167,889	-13.0	5,596	-60.6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6,502	19.5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6,156	-14.8
3/4	2,127,652	-27.1	1,540,403	-5.0	31,807	-24.2	6,187	-3.0
4/4	2,634,663	-27.7	1,521,927	-60.8	43,915	-11.7	2,942	-60.6
2013. 1/4	1,838,644	-24.6	1,199,772	-49.1	41,927	-8.3	2,650	-59.2
2/4	2,434,543	-6.1	1,143,533	-55.4	41,455	-10.8	2,622	-57.4
3/4	2,416,976	13.6	2,572,423	67.0	36,140	13.6	2,411	-60.1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3,068	-58.5
12	1,492,930	63.4	436,483	-42.7	15,102	-23.5	2,942	-60.6
2013. 01	462,034	-17.3	82,466	-83.7	14,348	14.6	2,691	-8.5
02	596,566	-16.5	516,833	-49.5	12,329	-13.2	2,563	-4.8
03	780,044	-33.1	600,473	-27.1	15,250	-19.4	2,697	-58.5
04	767,159	-6.1	106,960	-90.1	17,795	18.7	2,555	-58.7
05	874,153	5.6	565,109	-5.1	15,637	12.2	2,351	-61.2
06	793,231	-16.4	471,464	-20.8	12,554	-28.4	2,961	-51.9
07	608,787	-23.3	477,506	11.8	13,264	-9.8	2,565	-57.5
08	966,712	10.0	1,228,153	96.6	12,931	23.5	2,321	-61.1
09	841,477	16.9	866,764	97.0	9,945	7.5	2,346	-62.1
10	760,401	140.8	1,426,420	64.6	14,058	4.2	2,007	-51.6
11	485,898	-26.3	365,483	-43.6	11,699	-23.6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충남도 / 미분양주택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3=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0. 11	85.7	0.3	0.2	79.5	98.0	92.0	78.9	4.7	0.4	71.3	94.2	88.7
12	85.8	0.4	0.1	79.7	98.0	92.0	79.2	5.1	0.4	71.9	94.3	88.7
2011. 01	85.9	0.5	0.1	79.9	98.0	92.0	79.5	5.4	0.4	72.3	94.3	88.7
02	86.1	0.7	0.3	80.3	98.0	92.0	80.1	5.9	0.7	73.1	94.8	88.8
03	86.8	1.3	0.8	81.1	98.7	92.1	81.0	6.6	1.2	74.2	95.5	89.0
04	87.7	2.5	1.0	82.3	99.2	92.3	82.2	7.6	1.4	75.7	96.4	89.3
05	88.3	3.2	0.7	83.3	99.2	92.4	82.9	7.6	0.8	76.8	96.4	89.4
06	88.7	3.6	0.5	84.1	99.1	92.0	83.3	8.1	0.5	77.5	96.3	89.5
07	89.4	4.4	0.7	84.9	99.6	92.1	84.1	9.1	1.0	78.3	97.2	89.8
08	90.1	5.5	0.8	85.9	100.0	92.1	85.2	10.3	1.3	79.7	97.8	89.9
09	90.9	6.4	0.9	86.9	100.4	93.3	86.2	10.6	1.2	81.0	98.3	91.9
10	91.7	7.2	0.9	88.1	100.4	93.5	87.2	10.9	1.1	82.3	98.3	91.9
11	92.6	8.1	1.0	89.6	100.3	93.5	88.5	12.1	1.5	84.4	98.3	91.9
12	93.0	8.4	0.4	90.1	100.3	93.5	89.0	12.3	0.6	85.1	98.3	91.9
2012. 01	93.4	8.8	0.5	90.8	100.1	93.5	89.6	12.7	0.6	86.0	98.4	91.9
02	93.8	8.9	0.4	91.4	100.1	93.7	90.1	12.5	0.6	86.7	98.4	91.9
03	94.4	8.8	0.6	92.2	100.2	94.0	90.8	12.0	0.8	87.7	98.4	92.4
04	95.3	8.8	1.0	93.5	100.3	94.2	91.9	11.8	1.2	89.3	98.4	92.7
05	95.8	8.5	0.5	94.2	100.2	94.4	92.4	11.5	0.6	90.1	98.3	93.0
06	96.3	8.6	0.6	94.9	100.2	95.3	92.9	11.5	0.5	90.6	98.6	93.6
07	97.0	8.5	0.7	95.7	100.3	95.7	93.8	11.5	1.0	91.7	98.9	94.7
08	97.3	8.0	0.4	96.1	100.4	96.4	94.3	10.7	0.5	92.2	99.2	95.8
09	97.8	7.6	0.5	96.8	100.5	97.1	95.0	10.2	0.8	93.1	99.4	96.4
10	98.3	7.2	0.5	97.5	100.4	97.6	95.9	10.1	0.9	94.4	99.4	97.2
11	99.0	6.8	0.7	98.4	100.5	98.2	97.4	10.1	1.6	96.6	99.4	97.6
12	99.3	6.8	0.3	98.9	100.3	98.6	98.1	10.3	0.7	97.7	99.2	98.1
2013. 01	99.5	6.5	0.2	99.2	100.3	98.9	98.9	10.5	0.8	98.7	99.7	98.4
02	99.8	6.4	0.3	99.7	100.2	99.5	99.3	10.2	0.4	99.2	99.8	99.1
03	100.0	5.9	0.2	100.0	100.0	100.0	100.0	10.2	0.7	100.0	100.0	100.0
04	100.3	5.2	0.3	100.4	100.0	100.2	100.4	9.2	0.4	100.5	100.1	100.1
05	100.4	4.8	0.1	100.6	100.0	101.1	100.6	8.8	0.2	100.7	100.1	101.1
06	100.6	4.5	0.2	100.8	99.9	101.7	100.9	8.6	0.3	101.1	100.1	101.9
07	100.8	4.0	0.2	101.1	99.8	101.8	101.2	7.9	0.3	101.6	100.0	102.0
08	100.8	3.6	0.0	101.3	99.6	101.9	101.5	7.6	0.3	101.8	100.3	102.7
09	101.0	3.2	0.2	101.6	99.5	102.3	101.9	7.2	0.4	102.4	100.4	104.5
10	101.6	3.3	0.6	102.1	100.1	103.9	103.2	7.6	1.3	103.6	101.4	106.3
11	102.1	3.2	0.5	102.6	100.4	104.1	104.0	6.8	0.8	104.4	102.1	1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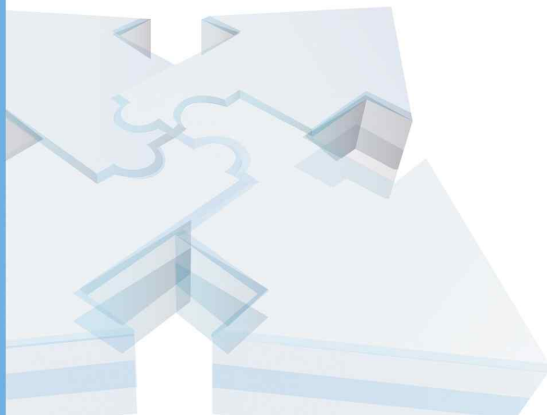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정책

ISSUE/기업탐방

경제중앙

경제일지

경제지표

과
목

2013년 충남 소상공인 QR코드 제작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3. 12. 17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충남도 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0개 사
※ 단, 최근 2년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유사 지원사업(홈페이지 제작 등) 수혜업체 제외
- 지원내용
 - 디자인 QR코드 및 모바일 웹 페이지 1식
 - 디자인 QR코드 활용 제품 1식
 - 온라인 홍보 및 관리자 교육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메일, 팩스접수(우편접수 불가)
 - E-mail : rambus@cepa.or.kr
 - FAX : 041-539-453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 (최근3개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가입자 명부(5인 미만 증빙용)
- 문의처 : 마케팅지원부 윤은기 매니저(041-539-4537)
- 주 소 : (336-813)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156호 마케팅지원부

예비전문가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지식영상서비스산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스타 콘텐츠제작을 촉진 하고자 기 구축된 공용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제작을 지원
- 신청기간 : 2013. 10. 1 ~ 2014. 3. 31
- 지원대상 : 충남 소재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개발 관련 개인(독립제작자), 1인 창조기업, 대학졸업예정자 등
- 지원내용
 - 전문인력과 장비를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실비지원)
 - 충남지역 소재 대학생 및 기업에 한해 총 10,000천원 범위(10건) 내에서 무상지원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서 제출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 문의처 :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지식서비스팀 041)589-0703, <http://ctp.or.kr>

2013년도 소상공인 컨설팅 참가업체 모집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2013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가업체를 모집
- 지원분야 : 경영진단, 사업계획, 마케팅, 상권분석, 인사·노무, 법률자문, 세무·회계, 기타애로사항
- 지원대상 : 충남·도 소재 소상공인 50개소(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내용 : 각 분야별 전문가 1:1을 통한 소상공인 컨설팅 무료지원(3일, 12시간)

□ 신청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3. 9.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메일, 팩스 접수
- 제출서류 : 컨설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www.cepa.or.kr), 041)539-4522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규격 중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분야 182종의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1개 해외규격인증 마크 지원
- 사업기간 : 2013. 8. 13(공고일) ~ 2013. 12월
- 지원내용 : 인증 획득 지도기관을 통한 컨설팅 비용, 인증심사, 제품시험 비용 등 최고 500만원

□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신청서 :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 기업 SOS 충남넷(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13. 8. 13(공고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충남도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전화:041-635-3414)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펀더멘털 (Fundamental)

-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임



역플라자합의

- 1995년 4월 G7경제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엔저유도를 위한 합의로서 1985년 9월 대일적자를 메우기 위해 엔고 유도를 위한 플라자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역플라자합의로 부름



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절대적 구매력평가라고도 함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환율의 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적구매력평가라고 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MMF (Money Market Funds)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지수 : Purchasing Managers' Index)

-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



ISM 제조업 지수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미국 20개 산업의 300개 제조업체들에게 신규수주, 생산, 고용, 물품인도, 재고 등에 관한 설문으로 산출됨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미만이면 경기의 수축을 의미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지표에서 추세치를 제거해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 따라서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동행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빼준다는 의미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됨



셧다운 (Shutdown)

- 정부의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폐쇄되는 상태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 환경 · 복지 등 여러 사회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종의 ‘착한 투자’임

※ 출처 : NAVER 지식백과.

ISSUE/기업탐방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국
문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제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백운성·김양중·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신동호·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곽선아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2. 12월호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획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월호

내포시대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2012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3. 2월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황정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3. 3월호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김윤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충남발전연구원 정우혁

2013. 4월호

원화 강세에 따른 충남경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의미있는 변화, 'Long life design & Recycle'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박준형

2013. 5월호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도시브랜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공주·부여 역사도시의 관광산업기반 조성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2013. 6월호

충남 협동조합 현황과 과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향 및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2013. 7월호

美 출구전략에 따른 세계 경제 향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수희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재호

2013. 8월호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준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3. 9월호

충남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충남발전연구원 김혜정

2013.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식서비스산업 특성 및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조중만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1월호

뿌리산업 정책 동향과 충청권 현황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베이비붐세대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

대전발전연구원 김 필

2013. 12월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해
와 충남지역 서비스 실태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유럽 다기능 농업(MFA) 정책 사례와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정현희